

| 해석 |

1. 이순신 신도비

[두전] 증좌의정 행통제사 시충무공 신도비명

유명조선국 정현대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제사 증 효충장의 적의협력
선무공신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 영경연 감춘추관사 봉덕흥부원군 시
충무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김육 지음

승정대부 행의정부우참찬 오준 씀

가선대부 병조참판 이정영 전(篆)함

이백년 동안이나 나라가 태평하여 우리 백성들은 병란을 알지 못했다. 총을 쏘고 칼을 멘 왜적들이 동남쪽을 쳐들어와 서울과 개성과 평양을 모조리 함락시켜 일곱 도(道)가 도탄에 빠졌었다. 이때 도원수 권공(都元帥 權公)은 서울 근처에서 전투를 벌여 큰 성과를 얻었다. 통제 이공(統制 李公)은 바다에서 해전으로 큰 공을 세웠다.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명나라는 무엇을 믿고 원군을 파병하여 전투에 힘썼을 것인가. 종묘사직의 무궁한 국운인들 무엇에 의지하여 면연히 이어져 내려왔겠는가.

그런데 도원수 권공의 무덤에는 이미 큰 비석이 세워졌지만 통제 이공의 산소에는 아직 사적을 기록한 비문조차 없으니 이 어찌 여러 선비들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이에 공(公)의 외손인 홍군(洪君)이 판서(判書) 이식(李植)이 지은 공의 시장(諡狀))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이며 비문을 지어줄 것을 청했다. 나는 이미 나이가 80에 가까운 늙은 몸이라 붓과 벼루를 멀리해온지 오래 되어 공(公)의 기개와 공훈을 만분의 하나라도 형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공의 깨끗한 충성심



과 큰 절개를 마음속으로 숭상해온 터에 어찌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또한 애초부터 공의 이야기를 한번 글로 써보고 싶었던 바를 그만둘 수 있을까 보나. 이에 감히 사양하지 않고 적어 본다.

공(公)은 덕수(德水) 이씨(李氏)요 이름은 순신(舜臣)이며 자(字)는 여해(汝該)이다. 세종조(世宗朝)때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정정공(貞靖公) 변(邊)의 5대손이다. 인종(仁宗) 원년(元年) 을사(乙巳)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이미 보통 아이들보다 특출했다. 여러 아이들과 함께 놀 때에도 진을 치는 흥내를 내며 대장으로 대접을 받았으므로 어른들이 기특하게 생각하였다. 성장하면서는 활을 쏘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

병자년(1576년)에는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병법에 관한 책인 무경(武經)에 나오는 황석공(黃石公)의 글에 대하여 시험관이 시험할 때에는 검시관이,

「장량(張良)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라가 놀았다 했으니 과연 죽지 않았겠느냐?」

하자 공이,

「한(漢)나라 혜제(惠帝) 6년에 유후(留侯) 장량(張良)이 죽었다 함은 강목(綱目)에 적힌 바이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았을 리가 있으랴.」

고 대답했다. 이에 시험관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무인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경탄하였다.

서애(西厓) 유성룡 정승은 젊어서부터 공과 사이가 좋았던 분인데 항상 공을 대장재목이라고 칭찬했다. 울곡(栗谷) 이퇴계 선생도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때 서애를 통하여 만나보기를 청했으나 공은 거절하였다. 같은 문중의 사람이니 한번 만나봄직도 했건만 그가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만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이 훈련원(訓練院) 봉사(奉事)로 있을 때의 일이다. 병조판서 김귀영(金貴榮)에게는 딸이 있어 공을 사위를 삼으려 했다.

그러나 공은

「내가 이제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섰는데 어찌 세도가의 집안에 발을 붙이랴」

하고, 당장에 중매 할머니를 쫓아 버린 일도 있었다. 공(公)은 변방의

장수가 되었을 때나 군관(軍官)이 되었을 때에 사리사욕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상



관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따져서 바로 잡았다. 비록 미움을 받을망정 꺼려하지 않았다.

일찍이 건원보(乾原堡) 권관(權管:종 9품 무관직)으로 있을 때는 오랑캐 울지내(鬱只乃)의 문제가 오랜 동안 변방의 걱정거리였다. 공이 울지내를 잡아 오자 병사(兵使) 김우서(金禹瑞)가 그 공을 시기하여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부렸다는 죄목으로 보고하고 상도 주지 않았다.

공이 건원보(乾原堡)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친의 상사를 당했다. 분상했다가 3년 상을 마치고 곧 사복시 주부(司僕侍 主簿:종6품직)가 된 지 겨우 반달 만에 조산만호(造山萬戶:종 4품 무관직)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순찰사(巡察使) 정언신(鄭彦信)이 녹둔도(鹿屯島)에 주둔군의 군량을 자급하기 위한 밭을 만들고 공에게 그 일을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다. 공이 둔전에서 일할 군사가 적으므로 여러 번 국경을 지키는 민병을 더 지원해 줄 것을 청했으나 병사 이일(李鎰)은 허락하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과연 대규모의 오랑캐들이 쳐들어 왔다. 공은 힘써 싸워 이를 막아냈다. 그 괴수를 쏘아 죽인 뒤 추격하여 사로잡혀 간 둔전 군사 육십여 명을 구하여 돌아왔다. 그러나 병사는 공을 죽여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영문에서 목을 베려 하였다. 이에, 군관 선거이(軍官 宣居怡)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술을 권하며 위로할 때 공은 정색하며,

「죽고 삶이 모두 천명이거늘 술은 마셔서 무엇 하랴.」

하고 뜰 안으로 들어가 항변하며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병사도 기세가 꺾여 옥에 가두고 조정에 보고를 할 뿐이었다. 조정에서는 공의 무죄함을 살펴 백의 종군하게 하였다. 얼마 후 오랑캐의 목을 바친 공로로 용서를 받았다.

기축년(선조 22년, 1589년)에 선전관(宣傳官)으로서 정읍현감에 임명되었다.

경인년에는 서애가 힘써 조정에 천거하여 고사리첨사(高沙里僉使:종 3품 무관직)로 승진하였으며 계급을 올려 만포첨사(滿浦僉使)가 되었으나 대관(臺官)들이 승진이 너무 빠르다 하여 다시 고쳐졌다.

신묘년(辛卯年)에는 진도군수(珍島郡守)와 가리포첨사(加籬浦僉使)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정 3품 무관직)로 뽑혔다. 이때는 이미 왜적과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공은 이를 깊이 걱정하며 날마다 방비할 기구들을 보수



하고 거북선을 창작했다. 못을 꽂은 판자로 배를 덮어 군사를 감추고 대포를 설치해 싸운 결과 마침내 승리를 하였다.

임진년(선조 25년, 1519년)에 왜적이 부산과 동래를 함락하고 거침없이 북으로 상륙해 왔다. 공은 군사를 옮겨 왜적을 치자 했으나 부하들 모두가 전라도 진을 떠나는 것을 곤란하게 생각하므로 공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적과 싸우다가 죽는 일뿐이다.」

하고 여러 곳의 군사를 합하여 출병하려 했다. 이때 마침 경상우수사 원균이 사람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므로 군사를 이끌고 옥포(玉浦)로 나가 만호(萬戶) 이운룡(李雲龍)과 우치적(禹致績) 등을 선봉으로 삼아 왜적선 30척을 파선시켰다. 고성(固城)에 다다르니 서울이 함락되어 임금이 피난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다. 서쪽을 향하여 통곡하고 군사를 이끌고 다시 본영으로 돌아왔다.

원균이 또 구원병을 청하므로 공이 노량으로 달려가 왜선 13척을 깨뜨리고 사천까지 쫓아가 싸울 때는 어깨에 탄환을 맞았건만 활을 놓지 않고 하루 종일 싸움을 독려했으므로 아무도 그것을 아는 이가 없었다.

6월에는 당포(唐浦)에서 싸웠다. 왜적은 그림을 그린 층각배를 타고 왔다. 화살을 쏘아 금관을 쓰고 비단 전포를 입은 괴수를 사살했다. 남은 졸병들도 모두 다 무찔렀다. 정오에 왜선이 또 다시 대규모로 진격해 왔다. 공은 빼앗은 적선을 앞줄에 세워 적과의 거리를 한 마장쯤 떨어지게 한 후 불을 질렀다. 화약이 폭발하며 불꽃을 솟아오르게 하고 벼락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적들은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와 고성에서 합세했다. 누각배에 타고 있던 왜장을 죽이고 삼십여 척을 쳐부수니 왜적이 육지로 달아났다. 드디어 승리를 하고 이억기와 함께 본영으로 돌아왔다.

왜적이 또 호남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공은 고성으로 나갔다. 바다를 덮을 듯이 적선이 밀려오고 있었다. 공은 거짚으로 후퇴하여 적을 한산도까지 피어내 칠십여 척을 섬멸했다. 적의 괴수 평수가는 몸을 피해 달아났으며 죽은 자가 거의 만명이나 되자 왜병들은 놀라며 떨어졌다.

공은 밤낮으로 경계를 엄격히 하여 언제나 갑옷을 벗고 누운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몹시 밝았다. 공은 갑자기 일어나 술 한 잔을 마시고는 모든 장수들을 불러,



「적은 간사한 꾀가 많아 달이 없는 밤에는 원래 우리를 습격해 오는 법이거니와 달이 밝은 밤에도 응당 침범해오기가 쉬우니 경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하고 호각을 불어 모든 배에 닻을 들게 하였다. 그랬더니 그와 거의 동시에 보초선에서 적이 침범해 오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달은 서산에 걸렸는데, 어둠을 틈타 밀려오는 적선의 수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중군(中軍)이 대포를 쏘며 고함을 지르자 여러 배에서 한꺼번에 응사를 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안 왜 적은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물러가 버렸다. 모든 장수들이 공을 가리켜 신이라고 일컬었다.

공은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을 섬멸해 적의 근거지를 없애 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적들이 목책을 치고 높은 산으로 도망을 쳤으므로 빈 배 100여척에 불을 지르고 돌아왔다.

공이 연달아 승첩을 아뢰자 조정에서 이를 높이 평가해 계급을 정헌(正憲:정 2품 계)으로 올리고 교서를 내려 표창하고 칭찬하였다.

공이 한산도로 진을 옮겨 전라, 경상 두 도를 제압하자고 청하자 조정이 허락하였다. 또 수군통제사의 제도를 두어 공에게 겸하여 거느리게 했다. 이로부터 통제영의 제도가 시작되었다.

공(公)이 별도로 쌀 5백석을 모아 봉해두므로 어떤 이가 무엇에 쓸 것이냐 물었더니, 「지금 임금이 의주(義州)에 피난을 가게인데, 만일 요동으로 건너가시게 되면 배편을 이용해 의주로 달려가 임금의 피난 행차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나라의 운명을 구하는 길이요, 나의 직분이다. 이것은 그때 임금이 잡수실 양식으로 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함이 이와 같았다.

원균(元均)은 성품이 본시 급하고 질투가 많았다. 또 스스로를 선배라 하여 공의 아래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은 침묵하며 그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허물을 돌려 자기를 갈아 달라고 청했으나, 조정에서는 원균(均)을 충청병사(忠淸兵使)로 임명했다. 원균은 조정의 대신들과 밀약하여 여러 가지로 모함하였다.

이때에 적장 행장(行長)과 청정(淸正)이 거짓으로 서로를 죽이려한다는 술수로 요시라(要時羅)를 간첩으로 삼아 먼저 청정을 치도록 하였다. 조정에서는 그 술책에



속아 공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라 재촉 했다. 그러나 공은 적의 간사한 꾀를 미리 알고 쉬운 방법으로 적을 물리치려 이에 반대하였다. 공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은 공이 싸우기를 회피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죄라고 탄핵하여 정유(丁酉)년 2월에 공을 옥에 가두었다. 이에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보고하기를, 「적이 무서워하는 것은 수군인데 이순신을 갈아서는 안 되고 원균을 보내서는 더욱 안 됩니다.」

했으나 조정에서는 듣지 않았다. 이원익(李元翼)이 탄식하기를, 「나랏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였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판부사 정탁(判府事 鄭琢)이, 「군사의 기밀은 멀리 앉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또 그가 싸우려 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뒷날 다시 한 번 공로를 세우도록 하소서.」 하니 마침내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이때 어머니가 아산에서 돌아가시니 공이 울부짖으며, 「나라에 충성을 다했건만 죄를 입었고, 아버이를 섬기려 했건만 돌아가시고 말았구나.」

하니 듣는 이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공(公)이 진영에 있을 때 운주당(運籌堂)이란 이름의 건물을 짓고 모든 장수들과 함께 거기서 병영의 일을 의논하였다. 원균이 공의 자리에 부임해서는 공이 하던 일을 모두 변경했다. 운주당에 첩을 두고 울타리를 둘러막으니 모든 장수들이 그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 못된 짓만 하므로 여러 군사들에게 인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요시라(要時羅)가 와서,

「청정(淸正)의 후원 군사들이 이제 한창 오는 길이니 그것을 막아 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다. 조정에서도 빨리 나가 싸우라고 재촉하였다. 칠월에 원균이 전군을 다 데리고 나가 싸웠다. 적이 야음을 틈타 엄습하여 군사 모두가 패배하여 달아나다가 죽었다. 군함 백여 척도 모두 다 한산(閑山)에서 파선되고 말았다.

적들은 바다에서 상륙하여 남원(南原)을 함락했다. 조정에서는 마침내 공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용하여 통제사로 삼았다. 공은 십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말을



달려 순천(順天)으로 갔다. 남은 배 십여 척을 수습하고 흩어진 군사 수백 명을 모아 어란도(於蘭島)에서 적을 무찔렀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은 약하다 하여 공에게 육전을 명했다. 공은,

「적이 바로 전라도(全羅道)와 충청도(忠淸道)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까닭입니다. 전선이 비록 적다할지라도 신이 죽지 않는 이상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호남의 피난선들이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것이 100여 척이었다. 공이 그들과 약속한 다음 진을 친 후방에다 늘여 세워 응원하게 하고 공의 배 십여 척이 앞에 나가서 적을 벽파정(碧波亭)에서 맞았다. 적선 수백 척이 와서 덮쳐도 공은 동요하지 않았다. 진용을 정돈하고 기다리다 적이 가까이 오자 총과 활을 한꺼번에 쏘아댔다. 군사들 모두가 죽기를 맹세하고 싸움에 적이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왜의 명장 마다시(馬多時)의 목까지 베니 군의 위엄이 다시 떨치어졌다. 승첩한 공으로 계급을 높여 상을 주려 하였으나 대간(臺諫)들이,

「이미 지위와 녹이 높다」

하고 반대하여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때 명(明)나라 경리(經理) 양호(楊鏞)가 서울에 있다가 글을 보내어 치하했다.

「근래에 와서 이런 승첩이 없었으므로 내가 직접 가서 괘홍(掛紅)하고자 하나 길이 멀어 가지 못한다.」

하고 백금과 붉은 비단을 보내어 표창하였다. 괘홍(掛紅)이란 중국 사람들이 폐백으로써 축하하는 예식의 이름이다.

무술년(선조 31년, 1598년) 봄에 진을 고금도(古今島)로 옮겼다. 공이 모친의 상중에 기용되어 군문에 종사하면서 날마다 몇 홉의 밥을 먹어 얼굴이 야위었으므로 조정에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방편을 따르라고 분부하였다.

이해 가을에 도독(都督) 진린(陳璘)이 수군 5,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백성을 성가시게 하므로 공이 군중에 영을 내려 군막을 뜯게 하니 도독(都督)이 달려와 물었다. 공이,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귀국 장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마치 부모 기다리듯 하였는



데, 정작 와서는 약탈만 일삼아 모두 도망칠 것만 생각하니, 난들 어찌 혼자 남아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진공(陳公)이 손을 잡고 말리므로 공이 다시,

「귀국 군사들이 나를 속국 신하라 하여 조금도 꺼림이 없으니 만일 임시방편으로 제어할 권한을 준다면 해결할 도리가 있을 것ियो.」

하였다. 진(陳)공이 또한 허락하니 그때부터 온 섬 안이 무사해졌다.

부하 송여종(宋汝棕)이 명(明)나라 수군과 함께 적을 쳐서 칠십 명의 목을 베었지만 명군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다. 진공이 부끄러워하며 성을 내자 공이,

「장군이 와서 우리 군사를 통제하시는데 우리 군사의 승첩이 곧 귀국 군사의 승첩인데 어찌 감히 내가 차지하리까. 얻은 것을 모두 바치오리다.」

하니 진공이 몹시 기뻐하여,

「일찍이 공의 명성을 들어 왔는바 이제 보니 과연 그리 하오이다.」

하였다.

이 일로 송여종(宋汝棕)은 실망하여 스스로 하소연하므로 공이 웃으며,
「썩은 머리를 아껴서 무엇 하랴. 그대의 공은 내가 다 보고로 아뢰겠소.」

하니 여종(汝種)도 또한 복종하였다.

진(陳)이 공의 군사를 다스리고 군락을 세우는 것을 보고 탄복해 말하기를,

「공은 실로 작은 나라 인물이 아니다. 만일 중국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천하의 대장이 되리라.」

하였다.

선조대왕께 글을 올리기를,

「이통제는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 잡은 공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심으로 탄복했던 때문이었다. 드디어 명(明)나라 황제에게까지 아뢰니 황제 또한 가상히 생각하여 공에게 도독의 도장을 선물하니 지금까지 통제영에서 간직하고 있다.

9월에 명나라 제독(提督) 유정(劉綎)이 중국 사천(四川) 운남(雲南) 등지의 군사 일만 오천 명을 거느리고 예교(曳橋) 북쪽에 진을 쳤다. 10월에 수군과 함께 적을 협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공이 도독과 함께 나가 싸우던 중에 첨사(僉使) 황세득(黃世



得)이 탄환에 맞아 죽었는데,

세득(世得)은 공의 처 종형이므로 여러 장수들이 들어와 조상하였다. 이때 공은,
「세득(世得)은 나라의 일로 죽었으므로 영광스럽다.」

하였다.

행장(行長)이 도독(都督)에게 뇌물을 보내어 공을 퇴진시켜 주기를 청했다. 도독이
공을 퇴진시키려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대장이란 화친을 말해서는 못 쓰고 또 원수를 놓아 보낼 수 없다.」

하니 도독(都督)이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행장(行長)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조선 군사는 마땅히 명나라 군사와 진을 쳐야 할 것인데 같은 곳에 함께 있는 것
은 무엇 때문이냐.」

하므로 공이,

「내 땅에 진을 치는 것이야 내 뜻대로 할 일이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대답하였다.

행장(行長)이 곤양(昆陽)의 사천(泗川)에 있는 저희 군사들과 함께 햇불을 들어 서로
신호하므로 공은 군사를 단속하여 대기하자 남해의 적이 노량(露梁)에 와 머무르고
있는 자가 많으므로 공(公)이 도독(都督)과 함께 밤 9시경에 떠나면서 하늘에 빌기를,
「이 적을 무찌른다면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하자 문득 큰 별이 바다 속으로 떨어지니 보는 이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였다. 새
벽 한 시경부터 적을 만나 큰 전투가 벌어져 아침에 이르러 크게 깨뜨리고 2백여 척
의 배에 불을 질렀다.

그 길로 남해(南海)의 경계까지 추격하여 화살과 포탄을 무릅쓰고 싸움을 독려했
다. 날아드는 탄환에 맞자 좌우에서 공을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공은,
「싸움이 한참 급하니 부디 내가 죽었다 말을 하지 마라.」

란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니 54세의 나이였다.

공의 조카 완(莞)이 공의 말대로 배 위에서 기를 휘두르며 싸움을 독려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적이 도독(都督)의 배를 에워싸 몹시 급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여러 장
수들이 대장선에서 깃발 휘두르는 것을 보고 모두 달려가 구원해 내었다. 정오쯤이



되어서야 적이 크게 패하여 먼 바다 밖으로 도망을 쳤다.

도독(都督)이 배를 가까이 돌려오며,

「통제공 어서 나오시오.」

하고 부르자 완(莞)이 울며,

「숙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니 도독이 배위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세 번이나 넘어졌다.

「죽은 뒤에도 나를 구원해 주었다.」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였다. 두 진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바다를 진동시켰다. 영구를 아산으로 모셔올 때에는 모든 백성과 선비들이 울부짖으며 제사를 차려 명복을 비는 행렬이 천리(千里)에 끊어지지 않았다.

조정에서도 제관을 보내어 조상하였으며 우의정(右議政)으로 증직했다. 갑진(甲辰)년에는 일등공신으로 정하며 효충장의 적의협력 선무공신(效忠仗義 迪毅協力 宣武功臣)의 호를 내리고 좌의정(左議政)으로 올렸다. 덕풍부원군(德豐府院君)을 봉하고 시호를 충무(忠武)라 했다. 좌수영(左水營) 근처에 사당을 지어 충민(忠愍)이라 사액하였다. 호남 사람들은 수영(水營) 동쪽 산마루에 비를 세워 사모하는 뜻을 표하였다. 기해(己亥)년 2월에 아산의 어름목에 장사를 지내니 거기는 선산이다.

공은 담력이 보통을 능가했으며 뜻이 굳세었다. 몸가짐이 규모가 있는 학자와 같았고, 효도와 우애는 타고난 천성이었다. 집안에서도 행실이 돈독하여 일찍 죽은 두 형이 남긴 조카들을 자식같이 길렀다. 일용하는 물품과 혼례를 치루는 일까지도 조카를 먼저 시키고 자기 아들은 뒤에 했다. 죄 없이 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죽고 사는 문제로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다. 공은 본시부터 이와 같이 수양해 왔으므로 지혜와 생각을 내면 한 가지도 빠짐이 없었다. 적의 정형 헤아리기를 귀신같이 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어 호서(湖西) 호남(湖南) 수 천리 땅을 온전하게 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근본이 되게 하였다.

바다를 가로막아 덮쳐 오는 적의 형세를 꺾음은 당나라 현종 때의 충신으로 합심하여 안록산의 군을 맞이하여 싸우다 전사한 저 장순(張巡)이나 허원(許遠)과 같았다. 몸소 힘을 다하다 죽은 것은 저 제갈무후(諸葛武后)와도 같았다. 나라일로 죽은 것은 같을지라도 큰 공을 거둔 이는 오직 공 한 분뿐이다.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編)



에 나오는 이야기로 증점이 공자에게 자신의 뜻은 子路, 有, 公西華와 다르다고 대답하였다 하는데, 저 세 사람과 다르다고 말한 것에 비겨도 좋을 것이다. 과연 그 공로는 온 나라를 덮었고 그 이름은 천하에 들렸으니 아아! 위대하시다. 공은 일찍이 노래하시기를,

「바다에 맹세하매 고기와 용들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매 초목이 아는 도다..」

하였는데 이 글은 읊는 사람마다 눈물짓고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친의 이름은 정(貞)이니 순충적덕(純忠積德) 병의보조공신(秉義補祚功臣)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 겸영경연사(兼領經筵事) 덕연부원군(德淵府院君)을 증직하였다.

조부의 이름은 백록(百祿)이니 선교랑(宣敎郎) 평시서봉사(平市暑奉事)인데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使)를 증직하였다.

증조부의 이름은 거(瑠)니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요, 어머니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을 증직 받은 초계(草溪) 변(卞)씨이다.

공은 보성군수(寶成郡守) 방진(方震)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세 아들과 한 딸을 낳았다. 큰아들은 현감(縣監) 회(薈)요, 둘째아들은 정랑(正郎) 예(莨)요, 막내아들의 이름은 면(勉)으로 공이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사랑하였다. 임진(壬辰)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해변에서 피란하다가 적을 만나 혼자 싸우다가 죽었다. 나이 십 칠세였다. 따님은 선비 홍비(洪斐)에게 시집갔다.

회(薈)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맏아들은 참봉(參奉) 지백(之白)이며 둘째는 지석(之皙)이요, 딸은 윤헌징(尹獻徵)에게 시집갔다. 그리고 예(莨)는 자식이 없어 지석(之皙)으로서 양자를 삼았으며, 사위 홍비(洪斐)는 네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큰 아들은 우태(宇泰)요, 둘째는 현감(縣監) 우기(宇紀)니 비명을 청하러 온 이가 곧 이 사람이며 셋째는 우형(宇廻)이요, 넷째는 진하(振夏)이다. 딸은 윤수경(尹守慶)에게 시집갔다. 지백(之白)은 겨우 낮은 벼슬밖에 못하고 자식이 없어 지석(之皙)의 맏아들 광윤(光胤)을 양아들로 삼았다. 지석(之皙)은 두 번 장가들어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낳았으나 아직 모두 어리니 후손이 어찌 이리 번성하지 못할까. 반드시 뒷날에 크게 되려나 보다.

노래하기를,



옛날에도 임진년에 큰 물결 일으킨 자가 하늘을 쏘는 예(羿 : 중국 요임금 때 활을 잘 쏘던 사람)와 같아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듯 배 띄워 다리를 놓고 중원 땅을 노려보아 삼남이 짓밟히고 칠도가 불에 탈 제 그 누가 나섰던고

우리 님 일어나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죽기를 맹세하도다.

눈물 뿌린 온교(溫嶠 : 晉 原帝때의 명장으로 반란을 평정하러 배에 오르며 눈물을 뿌리면서 맹세하였다.) 같고 뱃전 치던 사아(士雅 : 晉 原帝 때 예주자사로 있었으며 반란군을 평정하러 가면서 돛대를 두들기며 맹세하였다.) 같으니 벼슬은 통제사라네.

적의 간첩 피를 내어 다른 장수 내려오니 무슨 죄로 갈리셨나.

임금 은혜 내리시고 어진 대신 말을 올려 패한 뒤를 이으시니

깃발은 새 빛이 나고 군령은 엄숙하며 모든 군사 날래도다.

벽파진(碧波津)서 대첩하여 명성이 다시 떨쳐 강한 적이 약해지자

도망하는 바쁜 적들 동쪽 바다 바라보며 돌아가려 하건마는

적을 어찌 놓아주랴. 우리 군사 더욱 날래 회복할 기세인데

개신가 울리려 할 때 장수별 떨어지며 저 임이 가시오니

양의(楊儀 : 촉한 때의 명장으로 제갈공명이 죽으며 부탁한대로 행하였더니 위나라 장수 중달이 도망쳤다.)가 뒤를 잇자 중달(仲達)은 달아나고 일만 군사 모두 울어 슬프다 눈물 뿌려 바닷물이 넘치거니 이름이 천추에 전하도다.

붉은 명정 날리는데 부모라도 여윈 듯이 천리에 차린 제사

공도 크고 위도 높고 공신 그림 걸렸으니 저 임 길이 사시도다.

돌아가심 슬퍼하고 기련(祁連) 본뜬 무덤(한 무제 때의 명장 곽거병이 흉노를 정벌하자 그 공적을 기리어 그의 무덤이 봉문을 祈連山처럼 만든데서 유래함.) 치레 모두 임금 은혜로세.

사당 지어 충민(忠愍)이라 액자 써서 내리시며 춘추제사 올리도다.

평생에 그리건만 황천길이 막혀 있어 눈물 언제 마르리오.

글은 비록 거칠어도 훌륭한 어른이라 비석을 세우노라.



현감(縣監)과 정랑(正郎)이 모두 승정원 좌승지(承政院 左承旨)로 증직되었다. 이것은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지석(之楫)은 뒤에 벼슬이 사직령(司稷令)에 이르렀다.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다. 맏아들 광윤(光胤)은 이미 종손 참봉공(參奉公)의 뒤를 이어 벼슬이 참봉(參奉)이었다. 광진(光震)은 수사(水史)요 광보(光輔)는 우후(虞侯)요 그 다음은 광우(光宇) 광주(光胄)이다. 그리고 딸은 생원(生員) 홍서하(洪敍夏)에게 시집갔다. 서자는 광세(光世)다. 참봉(參奉-光胤)은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다. 맏이는 홍의(弘毅)니 도사(都使)요, 홍저(弘著)는 영장(營將)이요, 홍서(弘緒)와 홍건(弘健) 그리고 홍유(弘猷)는 광헌(光憲)의 뒤를 이었고 막내는 홍무(弘武)이다. 딸은 김진수(金震繡)에게 시집갔다. 수사(水使, 光震)의 두 서자는 홍수(弘樹)와 홍재(弘梓)이다. 우후(虞侯-光輔)의 두 아들은 홍규(弘規)와 홍구(弘矩)요, 딸은 박성서(朴聖瑞)에게 시집갔다, 광우(光宇)의 딸은 김한정(金漢鼎)에게 시집갔다. 광주(光胄)의 두 아들은 홍제(弘濟)와 홍협(弘協)이다. 도사(都使) 홍의(弘毅)의 두 아들은 만상(萬祥) 언상(彦祥)이다. 영장(營將) 홍저(弘箸)의 한 아들은 봉상(鳳祥)이며 딸은 홍원익(洪元益)에게 시집갔다. 홍서(弘緒)의 두 아들은 운상(雲祥)과 두상(斗祥)이다. 홍건(弘健)의 세 아들 홍유(弘猷)의 두 아들 홍무(弘茂)의 세 아들은 모두 다 어리다. 이 비석에 글을 새기는 공역이 끝나기는 경자년(顯宗 元年 1660년)이었으나 형편이 어려워 세우지 못하다가, 이제 3년 만에야 광진(光震)이 본도 수군절도사(本道 水軍節度使)가 되어 비로소 무덤 앞 길가에 세우게 되었다. 여러 자손들이 전날 기록에 미처 올리지 못한 이들을 삼가 여기에 기록하였다. 다만 외손들로 촌수가 먼 분들은 번거로워 실지 아니한다.

숙종(肅宗) 19년 계유(癸酉) 4월에 세우다.



| 원문 |

1. 李舜臣 神道碑

所在地 :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年 代 : 현종 원년(1660. 庚子)

碑 身 : 231cm 106cm cm33

撰 : 金 堉, 書 : 吳 竣, 篆 : 李正英

碑 銘 : 이순신 신도비

[頭篆] 贈左議政 行統制使 諡忠武公神道碑銘

有明朝鮮國 正憲大夫 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 三道統制使 贈效忠仗義 迪毅協力 宣
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兼 領經筵 監春秋館事 封德興府院君 諡忠
武公神道碑銘 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 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金堉 撰

崇政大夫 行議政府右參贊 吳竣 書

嘉善大夫 兵曹參判 李正英 篆

國家得太平二百年 民不知兵 飛丸荷劍之寇 猝犯東南 三京失守 七路塗炭 時則有若
元帥權公 虎視甸服 而大得雋 統制李公 龍驤海上 而奏膚功 微二公則 皇朝水陸之兵
何恃而得力 宗社無疆之曆 何賴而再造乎 然而元帥之墓 既有豐碑之樹 而統制之隧
尙無紀績之文 茲豈非薦紳諸先生之有餘憾者乎 今者 公之宅相洪君 持李判書植狀公
之行者 示余而請銘 余今老矣 年垂八十 筆硯已踈 公之氣概勳業 固不敢形容其萬一
而精忠大節 景仰心腹 則自髫年矣 又何敢游辭飾讓 不盡其所欲樂道者乎 茲敢不辭
而敘次之 公德水李姓 諱舜臣 字汝諧 世宗朝 大提學 貞靖公邊之五代孫也 以嘉靖乙
巳生 兒時已英偉異 凡與群兒戲 爲布陣狀 見推爲元帥 人甚異之 既長射藝絕倫 中萬
曆丙子科 講武經黃石公書 考官問 張良從赤松子游 則果不死乎 公曰漢惠帝六年 留
侯張良卒 此綱目之筆也 安有從仙不死之理 考官相顧 歎曰此豈武人所能及哉 西厓柳
相公 與公少相善 每稱才可將 栗谷李先生 長銓時 因西厓求見公 不肯曰 同宗可相見
在銓地 則不可 爲訓練奉事時 兵判金貴榮 有庶產箕帚兒 欲招公爲壻 公曰吾初出仕
路 豈可托迹權門 立謝媒媼 公爲邊將 或爲軍官 一介無所私 主將有非 輒盡言規正



雖見忤不恤也 嘗權管乾原堡 賊胡鬱只乃 久爲邊患 公縛以來 兵使金禹瑞 忌其功 啓以擅兵 賞不行 公在堡 奔父喪而服闋 卽主司僕簿 才半月 拜造山萬戶 巡察使鄭彥信 設屯田于鹿屯島 使公兼管 公以屯軍少 屢請添戍 兵使李鎰不許 秋擄果大入 公力戰拒之 射墮其酋 追擊之 奪所擄屯軍六十餘人還 兵使欲殺公自解 將斬之營下 軍官宜居怡 執手流涕 勸酒壓驚 公正色曰 死生命也 何以酒爲 入庭抗辨不少屈 兵使意沮 囚而啓聞 上察其無罪 命戴罪自效 俄以獻級 蒙宥 己丑以宣傳官 除井邑縣監 庚寅西厓力薦于朝 陞高沙里僉使 尋進階爲滿浦僉使 臺官以驟陞改正 辛卯除珍島郡守加里浦僉使 皆未赴 擢全羅左水使 是時 倭覓伊啓 公深憂之 日修備禦之具 剗作龜船覆板加釘 藏兵列砲 終得其力 壬辰倭陷釜山東萊 長驅而進 公欲移兵擊之 麾下皆以離鎮爲難 公曰今日之事 唯當擊賊而死 合諸堡兵將發會 慶尙右水使元均 遣人請援 公引兵赴玉浦 以萬戶李雲龍禹致績等 爲先鋒 先破倭船三十 至固城 聞京都已陷 大駕去頒 西向痛哭 引兵還營 均復請兵 公還赴露梁 破十三艘 追至泗川 丸中于肩 猶拂釋弓 終日督戰 人莫知之 六月又戰于唐浦 賊駕層樓畫船而來 以片箭殪金冠錦袍之酋 盡殲餘賊 日午賊船 又大至 公以所獲倭船置前 行去賊里許而焚之 火藥暴發 焰騰響震 賊大敗而走 全羅右水使李億祺 亦來會合戰於固城 又射層樓大酋殺之 破三十餘艘 賊登岸而走 遂與億祺還營 賊又向湖南 公又進兵固城 賊船蔽海而至 佯退誘賊 至閑山島 破七十餘艘 賊酋平秀家 脫身走 死者幾萬人 倭兵震恐 公在陣 晝夜戒嚴 未嘗解甲而臥 一夜月色甚明 公忽起飲一盃 悉召諸將曰 賊多詐謀 無月時固當襲我 月明亦應來 不可不驚備 遂吹角 令諸船皆舉碇 俄而候船告賊來 落月掛西 賊船從陰黑中來者 不可勝數 中軍放大砲吶喊 諸船皆應 賊知有備 遂不敢犯而退 諸將以爲神 公進擊釜山 欲覆其根 賊結寨登高 遂燒空船百餘而還 公連奏捷音 上嘉之 加階至正憲 下書褒美 公請移鎮閑山 控制兩道 朝廷許之 遂置水軍統制使 使公兼領 統營之設始此 公別儲精米五百石而封之 或問何用 公曰 主上越在龍灣 若至渡遼 則以龍舟 浮海迎駕 仍圖恢復 吾之職也 此可以備 玉食之供 其識慮之遠大 皆此類也 元均性本猜暴 又自以先輩 恥居公下 不遵節制 公絕口不言長短 自咎乞遞 朝廷以均爲忠清兵使 均締結朝貴 搆誣百端 時賊將行長清正 詐爲相圖之狀 使要時羅爲間 令先擊清正 朝廷信之 促公進兵 公知其詐 守便宜持難 言者劾以逗遛 丁酉二月 下公吏 體相李公元翼 馳啓 賊之所憚者 舟師也 李不可遞 元不可遣 朝廷不從 李相歎曰 國事無復可爲 上命議于大臣 判府事鄭琢曰 軍機不可度 其不進未必無意 請責後效 命白衣從軍 時母夫人卒于牙山 公號哭曰 竭忠於國 而罪已至 欲孝於親 而親則亡 人聞而悲之 公在鎮 置運籌堂 與諸將 論事其中 均代公 一反公所爲 貯妾其堂 而籬隔之 諸將罕見其面

專事凶虐。大失軍情。要時羅來言。清正後軍方來。可遮擊也。朝廷又促戰。七月均悉衆而出。賊乘夜掩襲。均軍潰走死。餘艘百艘。盡沒於閑山。賊由湖海下陸。進陷南原。朝廷遂起復公。爲統制。公以十數。騎馳入順天。得餘船十餘。稍收亡卒數百。敗賊于於蘭島。時朝廷以舟師單弱。命公陸戰。公曰賊不敢直突兩湖者。以舟師之扼其路也。戰船雖寡。微臣不死。則賊必不敢侮我矣。湖南避亂船。散泊諸島者百餘。公與之約束。列于軍後。以爲聲援。以公十艘。最著前。迎敵于碧波亭。賊船數百來襲。公不爲動。整陣以待。賊至近。砲射齊發。軍皆殊死戰。賊大敗而走。斬其名將馬多時。軍聲復振。捷聞。上欲賞階崇品。言者沮之。以祿位之高。時經理楊公鎬在京。移咨致賀曰。近來無此捷。吾欲掛紅。而遠未能焉。爲送白金紅段。使褒之。掛紅者。華人相賀以幣之禮也。戊戌春。移鎮古今島。公雖起復。從戎日食數溢米。形容頓瘁。上特遣使。諭旨從權。是秋。都督陳璘。領水兵五千來。頗侵擾居民。公令軍中。撤其廬舍。都督顛倒來問。曰軍民聞天將之來。如仰父母。今專事暴掠。人思逃避。我何得獨在。陳執公手。而止之。公曰。天兵謂我爲陪臣。少無忌也。倘令便宜呵禁。庶可以保。陳許之。自是島中帖然。裨將宋汝儂。與漢船同擊賊。斬七十級。漢人無所得。陳慙怒。公解之曰。大人來統我軍。我軍之捷。即天兵之捷。何敢私焉。謹盡納所獲。陳大喜曰。素聞公名。今果然矣。汝儂失望自訴。公笑曰。腐齒何惜。汝功吾當狀奏。汝儂亦服。陳見公治兵設策。歎服曰。公非小國人。若入中朝。當爲天下大將。進書於上曰。李統制。有經天緯地之才。補天浴日之功。蓋心服也。遂奏聞于帝。帝甚嘉之。賜公都督印。至今藏于營。九月。劉提督艇。率苗兵萬五千。陣曳橋之北。十月。約與水軍夾擊。公與都督進戰。僉使黃世得中丸而死。世得公之妻從兄也。諸將入弔。公曰。世得死於王事。其死也榮。行長賄都督退陣。都督欲使公退。公曰。大將不可言和。賊不可縱遣。都督赧然。行長遣人言曰。朝鮮當與上國兵異陣。而今同一處。何也。公曰。陣於我地。只任我意。非賊之所知也。行長與昆陽四川之賊。舉火相應。公嚴兵以待。南海之賊。來泊於露梁者無數。公與都督。二更同發。祝曰。此賊若除。死亦無憾。忽有大星隕於海中。見者驚異。四更遇賊大戰。至朝大破。至焚二百餘艘。追至南海界。親犯矢石。而督戰。有飛丸中公。左右扶入帳中。公曰。戰方急。慎勿言我死。言訖而終。年五十四。公之兄子堯。依公言。立船上。麾旗督戰如公。賊圍都督船甚急。諸將望見將船麾旗。爭赴以救。日午賊大敗。遁出外洋。都督移船。相近曰。統制速來。堯哭對曰。叔父休矣。都督躍起。而仆於船者三日。既死之後。乃能救我。拊膺大慟。兩陣皆哭聲震海中。返柩牙山。一路士民。號泣設祭。千里不絕。上即遣官弔祭。贈右議政。甲辰策勳第一。賜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之號。進左議政。封德豐府院君。諡忠武。立祠營邊。賜額忠愍。湖南人。立碑于東嶺。以寓悲慕。己亥二月。葬于牙山之水項。先兆也。公膽量過人。志操堅確。持身如學者之繩墨自律。孝友出於天性。居家行誼甚篤。其二兄皆先亡。

專事凶虐 大失軍情 要時羅來言 清正後軍方來 可遮擊也 朝廷又促戰 七月均悉衆而出 賊乘夜掩襲 均軍潰走死 餘艘百艘 盡沒於閑山 賊由湖海下陸 進陷南原 朝廷遂起復公 爲統制 公以十數 騎馳入順天 得餘船十餘 稍收亡卒數百 敗賊于於蘭島 時 朝廷以舟師單弱 命公陸戰 公曰賊不敢直突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必不敢侮我矣 湖南避亂船 散泊諸島者百餘 公與之約束 列于軍後 以爲聲援 以公十艘 最著前 迎敵于碧波亭 賊船數百來襲 公不爲動 整陣以待 賊至近 砲射齊發 軍皆殊死戰 賊大敗而走 斬其名將馬多時 軍聲復振 捷聞 上欲賞階崇品 言者沮之 以祿位之高 時經理楊公鎬在京 移咨致賀曰 近來無此捷 吾欲掛紅 而遠未能焉 爲送白金紅段 使褒之 掛紅者 華人相賀以幣之禮也 戊戌春 移鎮古今島 公雖起復 從戎日食數溢米 形容頓瘁 上特遣使 諭旨從權 是秋 都督陳璘 領水兵五千來 頗侵擾居民 公令軍中 撤其廬舍 都督顛倒來問 曰軍民聞天將之來 如仰父母 今專事暴掠 人思逃避 我何得獨在 陳執公手 而止之 公曰 天兵謂我爲陪臣 少無忌也 倘令便宜呵禁 庶可以保 陳許之 自是島中帖然 裨將宋汝惊 與漢船同擊賊 斬七十級 漢人無所得 陳慙怒 公解之曰 大人來統我軍 我軍之捷 卽 天兵之捷 何敢私焉 謹盡納所獲 陳大喜曰 素聞公名 今果然矣 汝惊失望自訴 公笑曰腐齒何惜 汝功吾當狀奏 汝惊亦服 陳見公治兵設策 歎服曰 公非小國人 若入中朝 當爲天下大將 進書於上曰 李統制 有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 蓋心服也 遂奏聞于帝 帝甚嘉之 賜公都督印 至今藏于營

九月 劉提督綏 率苗兵萬五千 陣曳橋之北 十月 約與水軍夾擊 公與都督進戰 僉使黃世得中丸而死 世得公之妻從兄也 諸將入弔 公曰世得死於王事 其死也榮 行長賄都督退陣 都督欲使公退 公曰大將不可言和 隸賊不可縱遣 都督赧然 行長遣人言曰 朝鮮當與上國兵異陣 而今同一處 何也 公曰陣於我地 只任我意 非賊之所知也 行長與昆陽泗川之賊 舉火相應 公嚴兵以待 南海之賊 來泊於露梁者無數 公與都督 二更同發 祝曰 此隸若除 死亦無憾 忽有大星隕於海中 見者驚異 四更遇賊大戰 至朝大破 至焚二百餘艘 追至南海界 親犯矢石 而督戰 有飛丸中公 左右扶入帳中 公曰戰方急 慎勿言我死 言訖而終 年五十四 公之兄子堯 依公言 立船上 麾旗督戰如公 賊圍都督船甚急 諸將望見將船麾旗 爭赴以救 日午賊大敗 遁出外洋 都督移船 相近曰 統制速來 堯哭對曰 叔父休矣 都督躍起 而仆於船者三日 既死之後 乃能救我 拊膺大慟 兩陣皆哭聲震海中 返柩牙山 一路士民 號泣設祭 千里不絕 上即遣官弔祭 贈右議政 甲辰策勳第一 賜效忠仗義 迪毅協力 宣武功臣之號 進左議政 封德豐府院君 諡忠武 立祠營邊 賜額忠愍 湖南人 立碑于東嶺 以寓悲慕 己亥二月 葬于牙山之水項 先兆也 公膽量過人 志操堅確 持身如學者之繩墨自律 孝友出於天性 居家行誼甚篤 其二兄皆先亡

撫養遺孤 若已出 日用之物 婚嫁之禮 必先姪而後子 雖或非罪而在纒綫之中 不以死
生動其心 其所養有本 故出謀發慮 舉無遺策 料敵如神 卒以取勝 全湖西南數千里封
疆 爲國家中興之根基 蔽遮江淮 沮遏其勢 與巡遠同 鞠躬盡瘁而後已 與武侯同 同死
國事 而大捷功收 惟公一人 倘所謂 異乎三子者 是耶非耶 功蓋一國 名聞四海 嗚呼
偉矣哉 公嘗有詩曰 蒼海魚龍動 盟山草木知 誦之者 莫不垂淚而激烈也 考諱貞 贈純
忠積德 秉義補祚功臣 大匡補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事 德淵府院君 祖
諱百祿 宣教郎 平市署奉事 贈嘉善大夫 戶曹參判 兼同知義禁府事 曾祖諱琚 通政大
夫 兵曹參議 母 贈貞敬夫人 草溪卞氏 公娶寶城郡守 方震之女 生三男一女 長縣監
香 次正郎 僥 季勉 公最愛其類己 壬辰 將母避賊于海曲 迎擊獨戰而死 年十七 女
適士人洪槩 香有二男一女 長參奉之白 次之哲 女適尹獻徵 僥 無子 以之哲爲後
洪有四男一女 長字泰 次縣監字紀 諱銘此其人也 次字迥 次振夏 女適尹守慶 之白繼
得一命 而又無子 以之哲之長子光胤爲後 之哲再娶 生六男一女 而皆幼 公之後嗣 又
何其不蕃耶 其必有大於後者歟 銘曰 昔歲龍蛇 海動鯨波 射天之羿 謂北可超 舟泛如
橋 氣凌遼薊 三道既躡 七省皆燼 孰有投袂 公乃奮起 嚼而碎齒 以死自誓 溫嶠灑泣
士雅擊楫 職是統制 敵間謀猜 他將已來 何罪而逮 聖主垂恩 賢相進言 敗而後繼 旌
旗變色 紀律嚴肅 軍心益銳 碧波一捷 威聲震疊 堅敵忽脆 逋寇動勳 却望東洋 已生
歸計 敵不可縱 戰士倍勇 恢復之勢 凱歌將獻 芒星赤隕 公朝上帝 揚儀整軍 仲達已
奔 萬人一涕 悲動蓬瀛 淚溢滄溟 名流百世 丹旌低仰 士民如喪 千里設祭 功高位極
像留麟閣 我公非逝 隱卒崇終 祁連象封 終始其惠 忠愍有祠 恩額淋漓 春秋牲幣 平
生景慕 已隔泉路 眼淚何霽 荒詞雖老 無愧有道 羊豕可繫

縣監正郎 俱贈承政院左承旨 蓋以錄原從勳也 之哲後官社稷令 有六男一女 長光胤
既繼宗孫參奉公後 官參奉 次光憲光震 水使光輔 虞侯光宇光胄 女生員洪絳夏 庶子
光世 參奉有六男一女 長弘毅都事 弘著營將 弘緒弘健弘猷 繼光憲後 弘茂女金震權
水使二庶子弘樹弘梓 虞侯二男弘規弘矩 一女朴聖瑞 光宇一女金漢鼎 光胄二男弘澤
弘協 都事二男萬祥營將 一男鳳祥 一女洪元益 弘緒二男 雲祥斗祥 弘健三男 弘猷二
男 弘茂三男 併幼 此碑刻役 訖工在庚子歲 而力綿未果立 迄今三十有四載 光震得節
度本道水軍 始克樹諸墓道 諸姓孫之未及與錄於前刻者 謹追敘如右 外裔稍遠者 繁不
復載

崇禎紀元後 癸酉四月 日立



간지2장
(어제이순신신도비,
사진)

| 해석 |

2. 어제 이순신 신도비

[두전] 상충정무지비

유명 수군도독 조선국 증효충장의 적의협력 선무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덕풍부원군 행정현대부 전라도 좌수군절도사겸 삼도통제사 시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명 병서

살았을 때는 수레와 옷을 주어 영화롭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며 음악에 올리고, 죽은 뒤에는 다섯 솔의 융성한 제물로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보양하게 하고, 공로를 기폭에 새겨 항상 그 밝은 빛과 아름다운 절개로 하여금 천지에 빛나고 산천에 짝하게 함으로써 호국하는 직책을 맡게 하여 백성에게 좋은 복이 입혀지도록 하는 것은 옛날 임금들이 공신을 표창하던 것과 같더니 주(周)나라 이후로는 그 법이 점점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석을 세워 비명을 새기는 것은 기폭에 써서 전하던 옛날의 뜻이 오늘날에 남아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임금이 비문을 짓는 것이다. 송나라 때의 충신 왕조(王朝)의 비석에는 ‘지극한 덕이 있는 원로’라 쓰여 있고 명나라 태조 때의 명장 서달(徐達)의 비석에는 ‘충성스런 뜻에 티 한 점 없는 이’라 쓰였거늘, 이런 특전을 받은 분이 천년 동안에 몇이나 되랴. 아아 우리나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같은 분은 그 공훈이 비문 짓는 법에 맞은 인물이라 내가 비문을 짓는대도 오히려 부끄러울 것이 없으리라.

충무공의 자(字)는 여해(汝諧)요, 대대로 덕수(德水) 사람이다. 일찍이 그 어머니 변(卞)씨의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니 이름을 순신(舜臣)이라 지으라.」

하였다. 아버지 정(貞)이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점을 쳐보니,

「길하다. 나이 50이 되면 응당 칼을 잡고 명장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다. 충무(忠武:이순신)는 이런 이상한 징조를 짚어지고 태어나더니 과연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았다. 또한 큰 뜻을 품더니 자라나면서 활을 쏘는 재주가 남보다 뛰어났다. 선조 9년인 1576년에 무과 시험에 급제하였다. 첫 벼슬로 변방에 나가 여러 번 공을 세움에 모든 사람들이 대장 재목이라고 칭송하였다.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이 조정에 천거하여 특채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 水軍節度使)로 삼았다. 이때는 왜인들은 우리나라를 치겠다고 떠들어 사이가 벌어진 즈음이었다. 충무는 이를 매우 걱정하며 밤낮으로 군사를 훈련시켰다. 병기를 다듬으며 접전하고 수비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특별히 배를 창제했는데 그 모양이 엷드린 거북을 닮았다하여 거북선이라 불렀다. 해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옛날 고대 중국에 있었던 전선(戰船) 몽충(蒙衝)에 비교하기도 했다. 임진년(1592년)에 왜적들이 대규모로 쳐들어 왔다. 부산(釜山) 동래(東來)를 함락시키고 여러 길로 나누어 서쪽으로 올라갔다. 충무는 곧 군사를 이끌고 옥포(玉浦)로 달려가 적선 이십여 척에 불을 지르고, 경상수군절도사(慶尙水軍節度使) 원균(元均)과 노량(露梁)에서 만나 적을 협공했다. 사천에 이르러서는 왜선 20여 척을 불태웠다. 당포(唐布)로 나아가서는 적선 20여 척을 만나 괴수를 죽이고 졸도들을 무찔렀다. 전라우도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 이익기(李億祺)와 함께 당항포(唐項浦)에서 군사를 합하여 적의 괴수가 탄 3층 배를 깨뜨리고 한산도(閑山島)까지 띄어내어 또 다시 크고 작은 배 70여 척을 무찔렀다. 싸움에 져서 도망치는 왜군을 쫓아 안골포(安骨浦)에 이르러 사십여 척의 배에 불을 질러 깨뜨렸다. 소문이 널리 퍼져 적이 무서워 떨었다. 이 승첩이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정헌(正憲:정 2품계)으로 계급을 승진시켰다. 그 다음 해인 계사(癸巳)년에 조정에서는 처음으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의 제도를 신설했다. 이순신은 본직을 가진 채 겸임하게 되어 진을 한산도로 옮겼다. 이때 원균은 절제 받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자주 헛소문을 퍼트렸다. 대신들과 밀약하여 충무(忠武)를 적과 싸우지 않고 머뭇거렸다는 죄목으로 옥에 갇히게 했다.

원균이 그 직책을 대신하였다. 두어 달 만에 우리 군사는 패하고 원균은 달아나다 죽었다. 조정에서는 다시 충무를 통제사(統制使)로 삼았다. 충무는 수십 명의 부하와 함께 말을 타고 순천부(順天府)로 달려갔다. 병선 10여 척을 얻고 여러 군데에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었다. 난도(蘭島)에서 적을 무찌르고 벽파정(碧波亭) 아래서



적을 맞아 30여 척의 왜선을 격파시켰다. 그리고 적장 마다시(馬多時)의 목을 베자 적들은 견디지 못하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무술(선조 31년, 1598년)년에는 명(明)나라 장수 진린(陣璘)이 광둥(廣東)의 군사를, 유정(劉綎)이 사천(四川)의 군사를, 또 등자룡(鄧子龍)이 절강직예(浙江直隸)의 군사를 각각 이끌고 연달아 왔었는데 충무는 고금도(古今島)로 나가 진린(陣璘)과 함께 진을 합쳤다.

이때 진린(陣璘)은 진심으로 그 재주와 책략과 기량과 능간(能幹)에 굴복하여 모든 군중의 기밀을 처결함에 묻지 않는 일이 없었고, 우리 선조(先祖)대왕께,

「이순신(李舜臣)은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 잡은 공이 있는 분이래.」

고 아뢰었다. 또 명나라 현황제(顯皇帝)에게도 자세히 아뢰어 충무(忠武)에게 도독인(都督印)을 내려주게 하였다. 그때는 이미 풍신수길(豐臣秀吉)이 죽고 소서행장(少西行長)이 철병하고자 하였다. 곤양(昆陽)과 사천(泗川) 등지에 진을 치고 있던 저희 군사들끼리 약속한 날을 정하여 노량(露梁)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충무는 명나라 장수와 수군을 정돈하고 서로 협력하여 왜군을 섬멸할 것을 의논했다. 그런 뒤, 배 위에서,

「오늘이야말로 사생을 결단하는 날이오니 하늘이여 내게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고 빌기를 마치자 이때 장수별이 떨어졌다. 모든 병사가 불길하게 생각했다. 새벽녘에 적을 맞아 싸워 2백여 척을 무찔렀다. 다시 추격하여 남해(南海)에 이르렀을 때 적이 명(明)나라 군사를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충무(忠武)는 화살과 포탄을 무릅쓰고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다 탄환에 맞아 돌아가셨다. 그가 을사년 생이니 나이 54세였다. 이듬해에 아들 회(薈) 등이 아산으로 모셔가 장사를 지냈다. 갑진년(6년 뒤, 1604년)에 훈공을 정하여 호를 내렸다. 증직은 의정부좌의정덕풍부원군(議政府左議政德豐府院君)이요,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그리고 싸움을 했던 터에 사당을 세워 지금껏 끊이지 않고 제사를 받들어 모시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어찌 그 공훈을 표창함에 족할까 보랴.

슬프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이 나기로는 목릉(선조의 陵號) 시대를 맞아 제일이라.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아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왔던 장수들 모두가



한 때의 영웅이었으나 적이 쳐들어와 물고기와 새우가 뛰고 바닷물이 뒤집히는 때를 당해서는 멀리로 물러나 싸울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병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충무는 8년 동안 싸우면서 반드시 이겼고, 수비하면 반드시 보전하여 나라의 운명이 공에 의지하여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였다. 적의 칼날은 그 때문에 꺾어져서 마침내 여러 곳에 소굴을 짓고, 날뛰던 간교한 놈들은 뒤를 돌아보느라 텨비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 장하신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를 세우심에 기초가 된 것은 오직 충무 한 분의 힘 바로 그것에 의지해서였다. 그러니 충무공(忠武公)에게 특별히 비명을 짓지 아니하고 그 누구의 비명을 쓴다 하겠는가?

옛날 시경(詩經)의 증민편(蒸民篇) 번후(樊侯)의 업적을 인용하자면 선왕의 덕이 거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신하된 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임금의 밝다는 뜻이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맡은 일을 다 함으로써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임금의 덕을 길이 기록하여 받드는 것이 옛 사람의 법도이다. 오늘날의 비명에 옛날 시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거늘 내 어찌 비명을 짓지 않을 수 있으랴. 이에 의정부영의정(議政府領議政)을 증직하고 그 시호에 따라 비석에 전(篆)자를 「충성을 높이고 무용을 표창하는 비」라 쓰고 서문과 노래를 지어 역사를 기록하는 이에게 알리노라.

옛날 중국의 주(周)나라에서 공로 표창을 맡았던 벼슬의 이름인 사훈씨(司勳氏)의 공로 표창하는 법을 상고하건대

훈(勳), 공(功), 다(多), 용(庸), 로(勞), 력(力)으로 나누거니

충무(忠武)같은 이야

어느 누가 전쟁과 임금과 나라에 공로가 있다 아니하랴.

첫 번 싸워 한산(閑山)이 평정되고, 두 번 싸워 벽파(碧波)가 편안하고, 세 번 싸워 노량(露梁)에 왜적이 없어지니

이것이 「다(多)」아니고 무엇이더

말 잘하는 선비는 혀만 놀리고 무서운 장수는 목을 움츠릴 때 천자의 명령을 받든 자는 오직 동국의 외로운 군사뿐이었으니 이 또한 「훈(勳)」이 아닐까 보냐.

임금의 수레는 서울로 돌아오고 모든 백성들 제 자리를 잡아

우리 억만 년 동국을 다시 회복했거니



이것이 또한 「공(功)」이 아니라.
아하! 까마귀 머리의 정려(旌閭) 거리에 있고
제사지낼 짐승을 매는 돌은 무덤에 있거니
마침내 비석에 전(篆)자를 새기는 은총까지 받는구나.
강물에 씻은 듯 깨끗한 영이로다.
해와 달이여 그 빛을 같이 할지로다.

명(明) 숭정기원(崇禎紀元) 후 3년인 갑인년(甲寅年, 정조 18년, 1794년) 10월초
4일에 세우다.



| 원문 |

2. 御製 李舜臣 神道碑

所在地 : 아산군 음봉면 삼거리
年 代 : 정조 18년(1794. 甲寅)
碑 身 : 233cm 105cm 47cm
撰 : 正祖
碑 銘 : 어제 이순신 신도비

▣ 御製 李舜臣 神道碑

[頭篆] 尙忠旌武之碑

有明 水軍都督 朝鮮國 贈效忠仗義 迪毅協力 宣武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兼領經筵 弘文館 藝文官 春秋官 觀象監事 德豐府院君 行正憲大夫 全羅左
道水軍節度使兼 三道統制使 諡忠武公 李舜臣 神道碑銘 并序

生而車服以寵之 讜饗以勞之 管絃以被之 沒也 祀之五鼎 養以世祿 銘乎旂常 俾其耿
光焜節 昭于上下 配于山川 以主其陰職 而庇休福於民 昔先王之收功臣也 成周以還
其法浸泯焉 然碑率之有銘 猶傳旂常之遺義 抑其特者 君之銘也 王朝之篆首 曰至德
元老 徐達之篆首 曰忠志無疵 歷千載幾人哉 嗚呼 若我朝之忠武公李舜臣功 惟應銘
法 予之銘之 尙亦無媿辭哉 忠武字汝諧 世爲德水人 其生母卞夢 其舅言 兒生必貴
其命名舜臣 父貞聞而異之 占之 曰吉季五十 當仗鉞爲名將 忠武既負此異 幼偶儻 且
有大志 及長射藝絕倫 中萬曆丙子武科 初仕邊屢立奇功 國人以將才稱 文忠公柳成龍
力薦于朝 遂擢爲全羅左道水軍節度使 時倭人聲言寇我 敵讐已成 忠武深憂之 日夜訓
卒利兵 治戰守備 別創船制 爲伏龜形 名曰龜船 習水戰者 比之蒙衝 壬辰 倭大舉入
拔釜山東萊 分道西上 忠武卽引兵赴玉浦 攻焚賊船二十餘艘 會慶尙水軍節度使元均
于露梁 夾擊賊 轉至泗川 焚十餘艘 進軍唐浦 遇賊二十餘艘 殪其酋 殲其衆 與全羅
右水軍節度使李億祺 合軍于唐項浦 破賊會三層樓船 誘至閑山島 又破大小七十餘艘
逐北至安骨浦 又燒破四十餘艘 軍聲大振 賊讐恐 捷聞輒加階 癸巳 朝廷創置三道水
軍統制使 命以本職兼之 移鎮閑山島 於是 元均耻受節制 數蜚語風言官 而忠武竟



以逗遛劾下吏 均則代之居數月 我師敗績 元均走死 朝廷復以忠武 爲統制使 忠武將
 數十騎馳 入順天府 得兵船十餘 行收亡卒 破賊于蘭島 已又迎賊于碧波亭下 破三十
 餘艘 斬其將馬多時 賊不能支 舉軍而遁 戊戌 天將陳璘 以廣兵 劉綎以川兵 鄧子龍
 以浙直兵 先後至 忠武進據古今島 與陳璘合陳 璘心折其才策器幹 凡軍中機密 無不
 咨決之 言于我 宣廟曰 李舜臣 有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 又具奏于 顯皇帝 賜
 忠武都督印綬 既而關白死 行長欲撤兵 約昆陽泗川屯 剋日竝進于露梁 忠武與 天將
 整舟師謀協勦 即船上祝曰 今日固決死 天其許我殲此賊乎 祝已河魁隕 一軍惡之 夜
 四鼓 邀賊鏖戰 焚二百餘艘 尾擊不舍 至南海 賊圍 天兵數重 忠武親冒矢石 直前突
 圍 戰方酣 中流丸死之 距其生乙巳 年五十四 明年 子蒼等 返葬于牙山 甲辰 策勦
 賜號贈議政府左議政 德豐府院君 諡忠武 立祠于戰伐遺墟 至今俎豆不輟 斯足以救厥
 功乎 悲夫 我國家人才之輩出 最稱 穆陵盛際 皇朝命帥之簡勁赴援者 亦皆一時之雋
 然當其魚跡蝦擲 海水群飛 未有不退三舍持兩端 而八年之間 戰必勝 守必保 國勢視
 以強弱 賊鋒爲之挫頓 使環土營窟之狡奴 狼顧不得逞 而以基我 烈祖中興之功者 維
 忠武一人之力是賴 不於忠武特銘之 而誰銘 且予聞之 蒸民之詩 所以述樊侯之績 而
 宣王之美 於是乎在 臣之能有成功 君之明也 夫受君之命 克終其事以有功 而以其功
 載君之美於無窮 古之道也 今之銘 詩之義存焉 予烏可已於銘 乃加贈議政府領議政
 因其諡 篆其首曰 尚忠旌武之碑 又序而銘之 以詔諸史氏 銘曰
 稽古司勳氏之銘于策也 曰勳曰功曰多曰庸曰勞曰力 若忠武者孰不曰功于戰于王于國
 一戰而閑山盪 再戰而碧波晏 三戰而露梁無倭 斯不亦多乎 謀士掉其舌 虎臣蹙其頰
 而用 天子命 惟汝屬國之孤軍 斯不亦勳乎 翠華反於土中 赤子奠於席上 重恢我萬億
 年大東 斯不亦功乎 於虜噫戲 烏頭在閭 牲石在隧 以卒受寵于篆首之章 江漢濯其靈
 而日月齊其光

皇明崇禎紀元後三甲寅十月初四日立



간지2장

(홍가신 신도비, 묘소사진)

| 해석 |

3. 홍가신 신도비

[두전] 판서치사 증우의정 겸 문장공 만전홍선생 신도비

유명조선국 증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우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영
원부원군 증시 문장공 행분충출기 합모적의 청난공신 승정대부 형조판서 겸 지의금
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영원군 치사 만전(晩全) 홍선생 신도비명

나이가 많아 관직을 내어놓고 물러났던 형조판서 영원군인 만전(晩全) 홍가신 선
생의 묘는 충남 아산시 염치읍 대동리를 바라보는 남쪽 언덕에 있다. 후진의 학자인
한양 조정(趙綱)은 만전 홍가신 묘비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말한다.

선생의 휘(諱)는 가신(可臣)이고 자는 흥도(興道)이며, 만전(晩全)은 호인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남양 홍씨(洪氏)는 먼 옛날부터 여러 대를 이어져 내려 왔다. 연산군 때에 이르러
휘(諱) 한(瀚)이 이조참의(吏曹參議)로서 무오년에 사화(史禍)를 입었다. 형장(刑杖)
을 때려 귀양지로 보냈는데, 가던 도중 길에서 돌아가셨다. 이 일이 무오록(戊午錄)
에 실려 있는데 이 분이 바로 선생의 증조부이다.

한이 휘(諱) 윤창(胤昌)을 낳았다. 벼슬이 내섬사판관(內贍寺判官)에 이르렀다. 윤
창이 휘(諱) 온(溫)을 낳았다. 벼슬이 장원서 장원(掌苑署 掌苑)에 이르렀다. 이 분
이 선생의 아버지이다. 부인은 흥양 신씨(興陽申氏)로 군수를 지낸 윤필(允弼)의 따
님이다.

선생이 청난공으로 책봉되므로써 조부 윤창에게는 이조판서가 증직되었다. 아버지
온에게는 영의정이 증직되었으며 어머니에게는 정경부인이 증직되었다.

선생은 중종 36년인 서기 1541년에 태어났다. 그때 어머니 신부인이 산후병으로
위독하며, 온 집안이 당황하고 조급하여 어린 아이를 돌 볼 겨를도 없이 여러 날이
지났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 했다. 산모의 병환이 조



금 덜하므로 포대기를 열어 보았다, 움직일 때마다 얼굴과 눈에 정채가 감돌았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감탄하며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다.

태어난 지 겨우 여덟 달만에 걷고 말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다. 여덟 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의정공을 따라 산불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때 의정공이 산이 불에 타는 광경을 시로 지어보라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나라의 성벽에 홀연히 한신의 깃발이 세워졌도다.”

라 읊었다. 의정공이 놀라며 기뻐했다.

성동(成童)의 나이인 15세가 되기 전에 소학, 사서, 시경, 서경, 자집을 순서대로 읽었다. 책을 덮고서도 그 내용을 모두 외웠다. 목소리가 크고 맑으며 필법과 시구의 운이 모두 세속의 기상을 벗어났다. 집안의 여러 어른들이 한결같이,

“우리 가문 참의공의 품모와 열절을 이 아이가 고스란히 빼어 닮았나 보다.”

하였다.

아이가 어른이 될 때 행하던 예인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성관례(成冠禮)를 올리면서 유성룡, 경함 이대성 등 당세의 명인들과 함께 어울려 과거 공부를 했다. 일찍이 알성시에 응시하였을 때는 글을 완성하기도 전에 시간이 다 지났다. 이경함이 과거의 문장을 모아 놓은 책을 주면서 선생에게 그것을 보고 써서 과문을 끝마치라고 권했다. 그러나 선생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이미 거두어진 답안지 속에 자기의 글을 끼워 넣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선생은 정색을 하고,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출신(出身)은 선비가 몸을 일으키는 첫 출발인데 시작부터 옳지 못한 일을 범한단 말이나?”

하고 질책하였다.

정묘년(중종 27년, 1567년)에 진사가 되어 태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옷차림새와 행동거지가 반드시 법도에 맞도록 행하였다.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공경과 겸양을 고루 갖추었다. 간혹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였으나 선생은 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예조(禮曹)에 갔는데, 같이 간 선비들이 마치 시장 바닥에서 이익을 다투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몹시 언짢아하기도 했다.

신미년(선조 4년)에 임금으로부터 천거되어 강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갑술년에 재주와 행실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예빈주부(禮賓主簿)로 승진 하였다가 얼마



뒤 형조좌랑으로 옮겼다. 이에 선생이 아버지인 의정공 앞에 무릎을 꿇고,
“조정에서 저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분에 넘치게 승진시켜 형조좌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선비들과 겨뤄보기 위해 과거시험에 응시한다면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후부터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자 하는 바 오직 아버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의정공도 그 뜻을 아름답게 생각하여 허락 하였다.

이 해 가을에 부여현감으로 부임했다. 부여는 곧 백제의 옛 도읍지이다. 선생은 부임하여 사당을 세워 백제의 충신인 성충, 계백, 홍수와 고려의 정언 이준오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 정언은 역적 신돈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부여에 귀양 와서 죽은 분이다.

또한 사당 옆에는 병사(丙舍)를 짓고 선비들을 모아 충효로써 몸과 마음을 수양하도록 배려하였다. 이 일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자 선조는 ‘의렬’(義烈)이라는 이름의 편액(扁額)을 하사하였다. 서애 유성룡은 선생의 미담사례를 글로 지어 문 위에 달아 놓도록 하였다.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 사헌부의 정 5품직인 지평(持平)으로 불렸다. 온 고을 백성들이 유입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여 현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비석에 글을 새겨 그의 아름다운 선정을 노래했다.

기묘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아버이를 잃은 자식으로서의 예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로 행했다. 복이 끝나자 아우 녹문공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계미년(선조 16년, 1583년) 여름에 장령을 거쳐 사헌부의 정 4품직인 전설사의 책임자(典設司)로 옮겼다가, 다시 안산군수로 부임했다.

을유년에는 선정을 베푼 치적을 인정받아 수원부사로 승진했다. 그러나 기축년에는 백유함의 모함으로 벼슬을 파직당하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 해를 보냈다.

임진년에 왜란이 일어나자 온 나라가 몹시 급하게 돌아갔다. 선생은 말 한 필이 없어 임금의 행차를 따라가지 못했다. 남녀노소의 백성들은 맨발로 걸어 다녀야 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지 못해 넘어지고 자빠지며 엎어지는 비참한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선생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여러 곳을 거쳐 남양



으로 들어갔다. 자제들을 불러 모아 병기를 준비하여 적과 싸웠다. 때로는 적의 목을 베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일이 행재소(行在所)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조정에서는 포상을 하지 않았다.

계사년(선조 26년, 1593년)에 파주목사를 제수하였다. 파주는 서남쪽 길을 총괄하는 길목이었다. 병화에 잔파(殘破)된 것이 가장 혹독한 곳이었다. 선생은 명을 받자 곧 부임하였다. 이때 왜구를 쫓아 낸 중국 장수가 마침 파주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을에서는 중국 군사들에게 공급할 양식을 이틀이나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화가 잔뜩 나있는 중국 장수가 선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은 곧바로 중국 장수를 찾아가 명함(名啣)을 보였다. 그러자 장수는 선생의 의표(儀表)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는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군대가 굶주리고 있는 것은 관사(官師)와 서리배의 잘못일 것입니다.”

하므로 선생이 사과하기를

“서리배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니 어찌 죽음을 사양하겠습니까?

하니 중국 장수가 손을 들고,

“착하도다.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아래 관리들에게 미루는데 대인께서는 그렇지 않군요.”

하였다. 선생은 곧 곡식 수백 석을 체찰부(體察府)에 청해서 한 편으로는 중국 군사들을 먹이고, 한 편으로 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조정에서는 선생은 서생(書生)이기 때문에 적을 막는데 책임자가 못 된다는 이유로 무인으로 바꿨다. 이에 온 고을의 남녀노소 백성들이 떠나가는 선생을 강가까지 따라 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그 모습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과 같았다.

잠시 호서(湖西)에 살 때는 온 집안이 굶주려서 얼굴빛이 누랬으나 선생은 태연하였다. 얼마 뒤에 임금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렸다. 강(綱)은 둘로, 목(目)은 열두 가지로 나누어 썼다. 마음먹은 것을 다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다음 해 봄에 임금의 뜻으로 특별히 홍주목사(洪州牧使)를 제수하니, 재상 김응남 공이,



“홍가신의 상소를 보고 처음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성상께서 상소 문제를 용납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고을의 목사로 임명하시니,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는 말이 가히 바꿀 수 없는 말이로다.”

하였다.

갑오년(선조27년, 1594년)에 광해(光海)가 왕세자로 나라의 일을 임금을 대신하여 살폈다. 이때 왕세자가 전주에서 홍주로 옮겨왔다. 따르고 호위하는 문무관원들이 각각 처자를 거느리고 오는 바람에 횡령이 매우 심했다. 선생은 일체 법도대로 행하며 정해진 것 이외에는 한 푼도 더 주지 않았다. 궁인과 총애를 받는 자들이 앞 다투어 미워했으나 선생은 돌아다보지도 않았다.

이때까지도 왜적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충남 서북부지방의 바닷가에 사는 수령들은 경쟁적으로 배를 준비하여 처자들을 보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선생만은 초연하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선생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웃으면서,

“고을을 맡은 신하는 고을을 위해서 죽는 법이다. 자기가 죽는 것도 돌아볼 수 없는 처지인데 어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있단 말이오.”

하였다.

병신년(선조 29년, 1596년)에 일본으로 가는 중국 사신 이종성과 양방형이 충청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선생은 도차관(都差官)으로 전의에 가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주관하여야 했다. 순찰 이하 2,000명의 관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다. 한 중국 장수가 불쾌하게 생각하여 군교들 중에서 사나운 자를 불러 모아 행패를 부리게 했다. 온 좌중이 창피를 당하고 놀라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그러나 선생만은 태연한 모습으로 단정히 앉아 있었다. 중국 장수가 한참동안 쳐다보다가 군교를 쫓아 보내고 종기와 붓을 가져다가,

“내가 천하의 선비를 많이 보아 왔으나 공과 같이 공부 완숙한 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을 받는 이는 드물게 본다.”

라 써 보이며 선생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항상 이렇게 꿍어앉아 있으면 다리의 힘이 손상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때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다가, 이별하기에 이르러서는 헤어



지기가 섭섭하다며 연연한 정표로 예물을 주기도 했다. 이 사람은 대체로 문장에 능했고 사람의 관상을 잘 보았는데, 중국 사신 중에 서기(書記)가 된 장방달이란 사람이다.

이 해 가을에 역적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홍산, 임천 두 고을을 함락 시키고, 수령을 결박하여 무지한 백성들을 위협하니 호서지방 전체가 크게 동요되었다. 어떤 사람이 선생에게,

“홍주성은 작고 낮아서 이몽학의 반란군을 맞아 대항하기 어려우니, 성을 버리고 임금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나는 왕명을 받아 이 고을을 다스리는 것인데, 어찌 감히 한 발자국이라도 홍주 땅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나.”

하고 죽음으로써 맹서하여 지킨 결과 마침내 홍주성을 완전히 수호하고 이몽학의 반란군을 섬멸하였다. 이 일은 홍양청난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해년(선조 32년, 1599년)에 벼슬의 임기가 차서 귀향하는데 이삿짐이 아무것도 없었다. 홍주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리 수십 석을 보내왔으나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또 벼슬을 제수하는 명령이 여러 번 내려졌으나 그때마다 받지 않고 모두 물리쳤다. 경자년에 비로소 첨지의 벼슬을 받아들였다. 얼마 뒤에 해주목사(海州牧使)를 제수하였는데 이조의 낭관으로 뽑힌 자가 도관찰사와 서로 내통하여, “왕자와 귀주(貴主)들의 12궁(宮)이 모두 이 한 고을에 모여 있으니, 목사 노릇하기가 여간 괴롭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사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므로 선생은,

“일이 어렵다고 사양하지 않는 것이 신하된 자의 직분이다.”

라 말하고 이튿날 조정을 하직하고 해수에 부임했다. 이에 아전들이,

“먼저 제궁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에 관아로 들어가는 것이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매, 선생은 손을 내저었다. 또 현관(縣官)이,

“지난날에 부임했던 목사들은 반드시 제궁에 물건을 바치고 잔치를 벌여 왕자와 의빈(儀賓)들을 위로했는데, 공은 어찌하여 그리 하지 않는가.”

하고 묻자 선생이 대답치 아니하니, 또 다시 연회를 강권하매 선생이,



“그것은 궁궐과 통하자는 일이 아닌가. 사대부의 염치를 이룬데 쓰지 않고 어디다 쓴단 말인가. 하물며 이 고을은 한 편으로는 제공을 받들고 한 편으로는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일에 이바지하느라 백성들의 고혈이 이미 다한지라, 내 어찌 차마 일신상의 안위와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렴주구의 죄 하나를 더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해 겨울에 드디어 벼슬을 내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 왔다.

임인년 봄에 청난원훈(淸難元勳)으로 책공(策功) 되어, 서울로 들어와 상소를 올렸다.

“미친 역적 이몽학은 오합지졸의 무리로 까마귀 떼처럼 모였으니, 가식(假息)의 혼이요 솔 속에 든 물고기 같은지라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신이 홍주성을 지킨 것은 바로 신하된 자의 마땅한 직분이오니 어찌 공신록에 기록될만한 공이 있다 하겠습니까. 황공하여 감히 사양 하겠습니다.”

하였다. 사양하기를 두 번이나 하였으나, 판결사를 제수하심과 동시에 주역(周易) 교정청 당상(校正廳 堂上)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얼마 뒤에 형조참판을 제수하였으며 또 강원감사에 옮겼으나, 도감의 녹훈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장계를 올려 서울에 머무르게 하매, 한성우윤으로 고치고 금오당상(金吾堂上)을 겸했다.

갑진년(선조 37년, 1604년)에 녹훈이 끝나자 정현대부(정2품)로 승진 시키매 간절하게 사양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특별진급으로 형조판서를 제수하여 입시하게 되었다. 이때 임금께 병환이 있는지 오래 되어, 여러 신하들이 의원과 약의 처방에 대하여 논했는데 선생만이 홀로 나가서,

“옛날 말에 병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올바르게 행동하여야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듯이 마음 역시 오장육부와 백가지 혈맥이 일금과 같으니 반드시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여 근본 근원을 올바르게 길러야만, 모든 병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갓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잘 풍자했다고 하였다.

을사년에 홍수가 일어나 백성들이 물에 떠내려가 죽었다. 선생이 임금께 왕자들의 집이 법도에 지나치고 무장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여 아뢰니, 만취(晩翠) 오억령공(吳億齡公)이 임금을 모시고 경서를 강의하는 자리인 연중(筵中)에 함께 있다가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홍 선생의 진언은 꼭진하고 맛이 있으니, 가히 문장에 조예가 깊은 사람임을 알겠도다.”

하였다.

당시 국가의 권력을 잡은 재상들은 백성의 신망을 얻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선비들은 정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해 평범하게 살았다.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나라 신하들의 벼슬 이름과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명 등을 기록한 명정에는 늙어 벼슬에서 물러났다는 치사란 두 글자를 쓴 사람을 볼 수 없으니, 가히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탄식하였다.

개성유수로 부임해서의 일이다. 그곳의 풍속은 장사를 숭상하여 먼 곳의 물건을 많이 들여와 사고팔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리로 있는 자들은 중국 사신이 올 때를 대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은자와 인삼을 시장에서 사다가 관청의 창고에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전례가 되어 온 지 오래였다. 선생은 생각하기를 재물이란 기름과 같아서 가까이 하면 사람을 더럽힌다고 생각 하였다. 시장의 상인들에게 행사의 순서와 물건의 늘어나고 줄어듦을 헤아려 준비하게 하였다.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시장에서 가져다 쓰도록 조치했다. 아전들은 여기에 간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백성들은 매우 편하게 생각하였다.

왕족이 살던 여러 궁가의 노비들이 왕족의 세력을 믿고 개성부의 백성들에게 제멋대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이에 선생은 아전궁에서 건장한 자를 뽑아 행패가 심한 궁노들을 모두 잡아들여 일일이 법에 따라 처리하니 감히 개성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또한 일찍이 화공에게 도연명의 ‘귀거래도’를 그리게 하여 벽에 걸어 놓고 항상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오자 상소를 올려 사직을 했다. 그날로 예성강에서 배를 타고 이틀 만에 아산의 공세리 포구에 닿았다. 선생의 옛 집이 있는 염치읍 대동리로 귀향하기 위해서였다.

정미년(선조40년, 1607년) 봄의 일이다. 공신들에게 계절의 가운데 달인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베푸는 연회와, 나이가 아주 많은 신하들에게 베푸는 상수연의 날짜를 가려 선생을 초청하였다.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하고 간단한 서식으로 훈



계 열여섯 글자를 헌납하였다.

“덕을 닦아 스스로 굳세어지고 마음을 맑게 하여 기운을 기르며, 어진이를 친히 하고 간사한 자를 멀리 하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보존한다.”

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축원으로 삼았다.

여름에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여러 신하들이 나이가 차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던 예를 인용하여 상소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빌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을에 중풍에 걸리게 되었다. 임금이 특별히 어의를 시켜 궁중에 있는 약재를 써서 치료하도록 하였다. 선생은 감격하여 울었다. 여러 날이 지나 병이 호전되자 글을 올려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무신년에 선조가 승하하자, 매우 슬프게 통곡하며 관직에 있을 때와 같이 예를 다하였다. 병든 몸으로 대궐에 들어가 조문을 마치고 돌아 왔다.

광해군 초에 정우복 경세공(鄭愚伏 經世公)이 임금께 진언하는 말을 올려 줄 것을 기원했다. 외척들이 좋은 벼슬을 맡아 놓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광해군이 크게 노하여 장차 멀리 귀양 보내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공정해야 하며 바른 말은 듣기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구하여 풀어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언짢게 생각하며 무리를 지어 정우복을 비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생은 우복과는 일찍이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었다. 오리 상공(梧里 相公)이 임금께 글을 올려,

“홍가신의 말은 참으로 사군자의 풍모를 닮았습니다.”

고 하였다.

경술년에 비로소 70세가 되니, 예법에 따라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일송 심 정승이 편지를 보내어 치하하기를,

“이 세상의 사대부들 중에서 명예와 절개를 보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은 노선생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을묘년(광해군 7년, 1615년) 봄에는 병환이 있는데다가 부인의 상까지 당했다. 선생은 주상으로서 상례를 주관함과 아울러 장례를 치름에 병을 핑계 삼아 조금도 게을



리 하지 않았다. 이에, 자제들이 여러 번 무리하지 말 것을 간청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로부터 지병이 더욱 심해졌다. 이 해 여름 6월 14일이었다. 증세로 보아 생명이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선생은 사람을 불러 몸을 부축케 하여 일어나 앉았다.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을 손질했다. 옷깃을 단정히 하고, 눈을 비비어 얼굴 표정을 편안하게 했다. 그런 뒤 자리에 반듯이 누워 숨을 거두었다. 이때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번쩍여 방안을 비추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한의 위공(魏公)이 세상을 떠나던 날 있었던 일에 비교하였다. 향년 75세였다. 이듬해 6월에 장례를 지냈다, 장사는 공신의 예법에 따라 관가에서 지내 주었다.

선생은 천성과 자질이 맑고 아름다웠다. 옥같이 따뜻하고 금같이 굳세어서 근엄하면서도 친해지고 싶은 인물이었다.

어렸을 때 여러 벗들과 함께 허초당(許草堂)에게 배웠다. 마침 퇴계 선생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선생을 보고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짐작했다. 판추 원혼(元判樞混) 어른은 세상에서 신묘한 감식능력이 있다고 일컫는데, 아주 좋은 이름난 향을 얻고서 말하기를,

“인품이 이 향과 서로 비슷한 사람은 오직 홍 아무개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선생이 비로소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반고에게서는 문장을 배우려 힘쓰고 두보에게서는 시를 배우기에 힘썼다. 최경창, 이순인 등 여러 문객들과 더불어 우열을 다투며 시조와 한시를 공부했다. 그러다가, 민습정(閔習靜)의 문하에 들어가 배웠다. 그때야 비로소 문장력이란 조그만 재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드디어 그 학문을 모두 버리고 실천하는 학문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 뒤에 또 퇴계 선생 문하에 들어가 배우면서 더욱 밝고 빛나는 근원을 보게 되었다. 행동과 학업이 더욱 명백하고 통쾌하여졌다. 편벽되고 사사로운 것은 끊었다. 원대하고 공정한 것을 행하는 데에 힘을 썼다.

공이 사현부에 있을 때, 조 원이 이조좌랑으로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수하고 천거했다, 공은 이 일을 용서하지 않고 탄핵했다. 조 원은 선생의 오랜 친구였다. 이율곡이 이를 보고 옛날의 법도가 살아있다고 칭찬하였다.

선생이 금오당상이 되었을 때, 황정욱이 도적에게 잡혀가서 임금을 저버린 죄에 연



좌 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 아들이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려 보내줄 것을 애원하므로 그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황정욱이 지은 죄는 윤리와 기강에 관련 된 것이므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강, 채, 문, 세 사람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당시의 의논들은 모르고 저지른 죄니 용서해 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말하기를, “뇌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매우 엄하게 다스렸다.

대사헌 강침은 평소에 선생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하루는 일가친척인 그 아우의 면책을 위하여 선생을 찾아 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갔다. 선생은 의논을 하면서 주장하기를 더욱 확고하게 했던 것이다.

계미 년 중간에 송, 허 등 여러 사람이 율곡을 탄핵하며, 중이라고 까지 비방했다. 선생은 이것을 잘못이라 하여,

“이는 군자의 말이 아니라.”

하였다. 그 뒤 회재와 퇴계 두 선생이 정인홍에게 모함을 받아 안과 밖의 많은 선비들이 서로 글을 올려 변론하는데, 말의 내용이 몹시 허황되어 남쪽에 있다는 커다란 바다까지 미칠 지경으로 심했다. 이에 선생이 말하기를,

“이는 장사치와 아녀자들이 다투는 말과 같다. 어찌 커다란 몸뚱어리가 없는가. 두 선생의 도가 크고 덕이 높은 것을 밝히면 간사한 말들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남쪽에 있다는 커다란 바다에 은둔한 높은 지조 또한 가히 버릴 수가 없다.”

하였다.

정인홍이 수우당의 묘비에 새길 글을 지어서 선생이 계신 곳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수우당도 역시 공과 의리로서 벗하였으니, 원컨대 공의 글을 받고자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사양하기를,

“나는 이미 늙어서 글을 쓸 수가 없다.”

하였다. 이는 정인홍의 사람됨을 하찮게 여긴 까닭이었다.

역적 정여립은 선생과 같은 해에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남쪽으로 가는 길에 수원부에 있는 선생을 찾아왔다. 화제가 주자(朱子)에게 미치자,

“회암(晦庵)이 수학(數學)에는 밝지 못했다.”



라 말하니, 선생이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박학(博學)한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잘못 본 것이다.”
하였다.

기축년의 옥사(獄事) 때는 역적이 많이 죽었는데, 선생은 이때도 김새를 먼저 알았
다는 기색이 없었다. 이발 형제가 매를 맞다가 죽으니, 선생은 옷을 벗어 시체를 덮
어 주었다. 곡을 하며 입관과 염습과 장례 지내는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자제들이
울면서 말렸으나 선생은,

“내 진실로 그의 원통함을 아는데, 어찌 화를 입고 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마음
을 바꾸겠는가.”

하였다. 사람들은 선생이 후일에 화를 입을까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선생의 평소
사람됨을 아는 이들의 힘을 입어 화를 입지는 않았다.

선생의 효행이 독실한 것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17—18세 때에 계모의
병환을 간병하였는데 그 증세가 여러 가지였다. 선생이 계모의 말을 듣고 의원에게
가서 처방약을 물어보고 돌아왔다. 계모가 의원에게 무어라 말했는가를 물었다. 선
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일일이 아뢰었다. 단 한 마디도 빼놓는 데가 없자 계모는,

“정성이 지극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의원도 또한,

“아버이의 병환으로 내 집에 오는 자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사람
을 움직이는 것은 흥 수재만한 자가 없었다.”

하였다. 약을 파는 사람도 좋은 약재를 골라 놓고 기다렸다. 많이 늙은 뒤에도 하
루라도 새벽에 사당을 참배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제사 음식은 반드시 친히 장만하
여 보살폈다. 비록 자제들에게도 대신 시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슬프도다. 선생의 학문은 실체에 가장 밝고 쓰임에 적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임
금을 섬기고 아버이를 봉양할 때나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다스리고 친구를
접대하며 큰일에 임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좌우로 근원을 만나 그
정당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선생이야 말로 가위 넓고 크고 통달한 선비라 하겠다. 이
에 아산과 온양 두 고을의 선비들은 선생을 위하여 각각 서원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부인 재령 이씨는 정경부인으로 봉해졌는데, 사축별제(司畜別提) 형(衡)의 따님이
다.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맑고 밝아서 남편을 밤낮으로 공경하여 섬겼다. 자손을 가



르치고 종을 부리는 데도 사랑스럽게 하면서 법도가 있었다.

선생이 일찍이 병에 걸려 위독하자 부인은 손가락을 베어 피를 약에 타서 먹였다. 70이 넘는 나이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서는 상중에 먹는 법도를 3년 동안이나 지켰다. 이에 군자들이 말하기를 장부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하였다. 무당과 장님의 굿이나 기도하는 것 등은 일체 하지 않았다. 집안이 비록 가난했으나 오직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모심은 물론 제물 또한 풍성하게 차렸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선생의 덕행이 자기 집에서도 행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만력 을묘(광해군 7년, 1615년) 3월에 돌아가셨다. 선생이 출생한 가정 경자년까지 나이가 76세였다.

5남 2녀를 낳았다. 선생의 셋째 아들 참봉 자 씨가 지난날에 나를 아산의 바닷가로 찾아 왔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그 평생의 행적을 적은 글과 유고를 나에게 주면서 비문을 부탁했다.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님은 내 아버지와 과거에 동시에 급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가장 절친했던 친구 사이였소. 그리고 당신은 이미 홍양청난비를 지은 바 있으니 내 아버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세상에 당신만한 사람이 없을 터시오. 그러기에 거듭 당신에게 우리 아버님의 비문을 부탁하오.”

하였다. 이에 내가 의리상 사양하지 못하고 외람되이 허락 하였었다. 그 후 참봉이 죽은 지도 이제 10여년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선생의 손자 우언이 북청에서 고을 수령의 보좌관 소임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들려 올면서 말하기를,

“숙부께서 부탁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에 세울 비문에 대한 일을 당신께서는 잊어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민첩하지 못함을 사죄하고 늙은 몸에 병이 들어 글을 쓰기가 어렵다고 사양했다. 그러나 우원 씨가 끝까지 간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드디어 선생의 평생 동안의 행적을 자세히 참고해서 본말을 기록하고 공경하면서 글로 써서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

명(銘)에 이르기를,

“옛날 우리 선왕께서 무력이나 권모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물리치고 유교(儒教)를 숭상하였다. 쉬고 있던 선비들은 세상의 쓰는 바가 되었도다. 사헌부에서



빛나게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을 강구하고 연마하였도다.

아름답다 오직 우리 선생이여,

보통보다 뛰어나고 무리와 다르도다. 집에 머무르면서는 반드시 어려운 것을 정리하고 움직이면 난초같이 향기가 나는구나. 친한 사람도 그의 뜻을 빼앗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도 가히 핍박하지 못하는구나.

오직 그 잡은 바는 성품이 고요하고 배워서 얻었도다. 행춘에게서는 눈 속에 섰고 퇴계에게서는 덕에 목욕을 하였도다.

안으로는 부모를 섬기고 밖으로는 직책을 다하니, 어느 곳에 간들 힘이나 마음을 다하지 않으리오. 의가 바르고 인이 성숙하였도다. 세상에서 이르기를 선비란 마땅히 쓰는 데에 당하면 사정에 어둡다 하지만 누구든 선생과 같이 움직이면 모두 중요한 일을 맞게 하리라.

세상에서 이르기를 선비란 모두 말이 많고 엄한 것을 자랑한다 하지만, 누가 선생과 같이 깊고 평범하며 겸손하겠는가. 계사 병신의 두 상소는 간(肝)의 피 한 주먹이었다. 임금의 밝은 지혜가 위에서 내리 비치시니 바른 말을 하였다. 바른 말을 하므로 고을을 맡기어 총애 하였다.

홍주는 힘하고 중요한 고을인데, 인심이 메마른 호서의 목구멍이다. 선행이 한 번 부임하자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밝게 흐르도다. 누가 얽힌 뿌리가 되었는데, 나에게는 잘 드는 병기가 있다. 누가 깨어진 수레가 되었는데, 나에게는 긴 고삐가 있도다. 개미 같은 역적 몽학이 임천을 무찌르고 홍산을 짓밟았도다. 하루아침에 머리를 바친 것은 누구의 공이던가.”

임금이 말하기를,

“원훈이여, 네 오너라. 공의 차례를 정하겠다.”

하였다. 선생은 굳이 사양하여 대머리가 판머리 보듯 하였도다. 마지 못하여 형조판서가 되고, 개성의 유수가 되었다. 가을 바람에 흥을 일으켜 오호(五湖)에 배를 띄웠도다. 그만둘 때를 안 것이 어진 것이 아닌가. 빛을 보고 나르는 것이 어렵도다. 일찍이 12년이 되지 못하여 위패를 모신 단에 밤이 되었도다.

윤리와 기강이 무너지고 어진이가 없어졌으니, 나라 안에 몇 사람이나 남았는가. 나서 순하고 죽어서 편안한 것은 선생의 아름다움이로다. 묘(墓)에 돌이 있으니 내가 행적을 추려 기록하도다.



이로써 오는 세상에 고하노니, 이곳을 지나는 이는 반드시 공경하는 뜻을 표하리로다.
(자손록(子孫錄)은 회암(希菴) 채참판(蔡參判) 팽윤(彭胤)이 추후하여 지었음.)

정현대부 지충추부사 조 경 지음



간지1장
(홍가신 신도비)

| 원문 |

3. 洪可臣 神道碑

所在地：아산군 염치면 대동리

年 代：숙종 43년(1717.丁酉)

碑 身：241cm 100cm 42cm

撰：趙綱, 書：金世欽, 篆：權珪

碑 銘：홍가신 신도비

▣ 洪可臣 神道碑

[頭篆] 判書致仕 贈右議政 諡文莊公 晚全洪先生神道碑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傳 寧原府院君 贈諡文莊公 奮忠出氣合謀迪毅 清難功臣 崇政大夫 行刑曹判書兼 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寧原君 致仕 晚全洪先生 神道碑銘 并序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趙綱 謹撰

通善郎 前弘文館校理 知製教兼 經筵侍讀官 春秋官記注官 金世欽 敬書

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權珪 篆

故致仕刑曹判書寧原君 晚全洪先生 葬在牙山縣治之南 大洞离向之原 後學漢陽趙綱 刻其墓碑曰 先生諱可臣 字興道 晚全其號也 南陽人 南陽之洪 遠有代序 當燕山時 有諱翰 以吏曹參議離史禍 廷榜流道卒 事見戊午錄 於先生爲曾大父 是生諱胤昌 官 卒內膳寺判官 生諱昱 官卒掌苑署 掌苑 先生皇考也 配興陽申氏 郡守允弼之女 以先 先生清難功 贈皇祖曰 戶曹判書 贈皇考曰領議政 妣曰 貞敬夫人 先生生於嘉靖申丑 生 時申夫人病於免乳危篤 一家遑急 不暇舉兒者厲日 咸謂兒死 及夫人疾間 開襖視之 面目動精彩 聞者嗟異 生才八月 步語知覺異凡兒 八歲從議政公觀山火 議政公令賦詩 應口對曰 趙壁忽豎韓信幟 議政公驚喜 未舞象端序 即見小學四書詩書子集 倍文淹貫 聲音洪亮 筆法詩韻 俱無世俗氣 門內諸丈 咸嘖嘆稱曰 吾家參議公風烈 其屬是兒乎



及冠所與游 皆當世名人 與柳西厓成龍 大成李景涵 同習博士業 嘗赴謁聖試 篇未圓 刻限將盡 李取東人程製 勸先生襲而就之 先生不應 又有圖置收舉中者 先生正色曰 出身士之發劑 初其犯不謹哉 丁卯成進士 游太學 衣冠動止 必蹈渠覆 發言出慮 必主敬讓 人或目攝之 先生不爲變 又嘗赴禮闈 見同造士 若爭利於市 慨然厭之 辛未薦授康陵參奉 甲戌以才行卓異 超主禮賓簿 無何 遷刑曹佐郎 先生乃跪告議政公曰 朝廷不知不肖 過舉至此 今又與寒士爭能 何異龍斷 欲自此廢舉 唯大人命 議政公 嘉其志而許之 是歲秋出宰夫餘縣 縣即百濟舊都也 先生至則創立廟祀 百濟忠臣成忠階伯 并高麗李正言存吾 正言蓋擊賊不勝 謫卒于此地也 旁啓爲舍 聚蛾子 礪以忠孝 寧聞賜額以義烈 西厓相爲文記其事 懸諸楣 瓜幾熟 以持平召 傾一縣借冠不得 則相與刻石 爲詩歌其美政 己卯丁內艱 居堊室 喪制一遵古禮 服闋與弟鹿門公 同室而居焉 癸未夏 由掌令改典設守 又出爲安山郡守 乙酉用治勸 陞水原府使 己丑白惟誠恚之而罷 家食者數年 壬辰夷難急 先生不全一馬 不得執轡從駕 百口老少 跣足而行 幾不免常口 顛頓竭蹶之謂何 而先生終無違違色 轉入南陽 倡鄉子弟設機討賊 時有斬級 然不屑聞于行在 其賞不朽 癸巳拜坡州牧師 坡管穀西南路 剝於兵最酷 先生聞命即赴 時逐寇天將 方住府 府絕供餉 至二日之久 天將發怒以待 先生即持刺謁天將 天將見先生儀表有異 下色以揖曰 俺之餒而官師青徒之罪也 先生拱謝曰 非胥徒罪 實在畀職死安辭 天將舉手曰 賢哉 人皆誘下吏 大人獨不 先生即請穀數十碩于體府 一餉天兵一賑饑民 亡何 朝議以先生書生 不合捍禦 代以武弁 一州耄倪 追至渡頭 頓足號哭如失父母 僑寓湖右 闔家菜色 先生晏如也 頃之聞 大駕還都 上萬言封事 綱二目十二 盡言不少諱 明年春 聖旨特除洪州 金相應南公曰 初見洪某疏 不覺啞然 聖上不直容之 寄以方州 君明臣直之語 不可易 甲午光海監國 自全州移住洪 從衙文武官 各挈孳橫貢蝟毛 先生繩以一切科外一錢禁不與 官人及幸璫 交惡之飛語無數 先生不顧 時倭寇尚且眈眈 內浦邊海邑倅 爭備海舶 以爲保妻子計 先生獨澹然無爲 或問其故 先生笑曰 封疆之臣 死於封疆 身且不恤 安顧其他 丙申封日本天使 李宗誠楊邦亨途湖也 先生以都差官 往全義 主饋餉 巡察以下 二千石長吏 咸萃列坐 一唐將概不快意 將軍枝之擗者 驟來 一坐舉被凌蹙駭散走 先生兀然危坐 不懼不動 天將注視良久 麾却校卒 索紙筆書示之曰 吾視天下士多矣 罕有如公工夫熟者 令人起敬 仍前拊膝曰 每爲危坐 恐損脚力 自是朝暮至 至臨別戀戀 贈以禮幣 夫人蓋能文章 善相人 爲天使書記者 張邦達云 是歲秋 逆豎夢鶴稱兵 陷鴻林二邑 縛宰以脅無知氓 湖西大震 或謂先生曰 城小而痺 難抗此賊 莫如舍城勤王 先生曰 我受命尸是州 豈敢離一步 誓以死殉 竟以完城殲賊 詳在洪陽清難碑 己亥官滿 歸橐枵然 洪民聞之 致麥數十斛却之 除命

屢下皆辭 庚子始謝僉知之命 俄拜海州 有選曹郎者 道柄相意曰 王子貴主十二宮 威
萃一州 爲牧苦 可知也 莫如辭 先生答曰 事不辭難 人臣職耳 翌日事朝赴海 吏以先
謁諸宮 後上官 爲例告 先生搗之 又有顯官問曰 異日爲牧 必別進諸宮 又有宴慰 王
子儀賓之禮 公何不 不答 後又強之 乃曰 是非交通官禁事耶 士大夫厭恥不用於此 而
用於何處 況此一州 右奉諸宮 左供軍需 民之膏血既竭 吾何忍 又爲容身保位計 添一
誅求門 冬遂投綬而歸 壬寅春 榮功爲清難元勳 承命入京 上疏曰 狂賊蒙鶴 烏合無根
特假息之魂 鼎中之魚耳 不亡何待 臣之城守 乃臣子職分 有何可紀之功 惶恐致辭 辭
之至再 除判決事 且有後命參周易校正廳堂上 俄拜刑曹參判 又遷江原監司 都監以錄
勳未克 啓留 改漢城右尹兼金吾堂上 甲辰勳勘畢 超正憲 堅懇以辭 不得命 拜大司寇
以特進入侍 時上違豫久 諸臣皆言醫藥 先生獨進曰 古語曰 治病如治國 君正而國治
心亦爲五臟六腑百脈之穴 必須清心寡慾 以養本源 諸病可治 不可徒循藥餌 聞者以爲
善諷 乙巳大水流殺民人 先生登對極言 王子第宅險制 武將驕蹇 反覆懇惻 吳晚翠億
齡公 同侍筵中 出語人曰 洪爺進言 委曲有味 可知讀書人也 時柄用 非民望也 不樂
在朝居 恒咄咄曰 我國宰臣 職御銘旌 未見致仕二字 可謂無恥矣 遷開城留守 開城俗
多賈隙遠方之貨物 爲官者 值華使所用銀蔘 于市束收之 儲之官庫待用 爲例蓋久 先
生以財如賦 近則汚人 使市儉 自度禮單多少 伸縮之數 臨時直取于市用之 吏無與焉
民甚便之 諸宮家奴怙勢 炮然府民者無算 先生於是 選耳目吏健者 盡捕宮奴 一一窮
問 得承問法如何而處之 其後宮奴畏避 不敢入開城 嘗令畫工貌淵明歸來圖 張之壁
常目在之 因秋風起 直上辭疏 即日換柁禮成江 二日到牙山貢津 先生舊居也 丁未春
功臣仲朔宴 及上壽宴 長弟卜期日 有旨召 先生病不能趨 命 上劄獻箴規十六字 修德
自強 清心養氣 親賢遠佞 畏天保民 以爲金鑑之祝 夏引唐宋諸臣致仕例 疏乞致仕不
報 秋患風緩 上特命御醫 實內劑看病 先生感泣累日 少間即 上劄以謝天恩 戊申 宣
廟升遐 號哭大慟 一如在廷之禮 昇疾入臨闕下 適還 光海初年 鄭愚伏經世公 因求言
抗章指摘 威婉隱仕切劄 光海大怒 將加大譴 先生聞之 以公好惡納 直言陳疏教解 光
海不悅 批以護黨 先生與愚伏 實未嘗有一日之雅也 梧里相公 上劄曰 洪某之言 其士
君子之言也 庚戌始滿七十 據禮乞致仕許之 一松沈相 以書賀曰 近世士大夫 保全名
節 終始無玷之人 老先生爲首云 乙卯春 疾病又連夫人之感 主喪臨貶 不以疾爲解 子
弟更諫 猶不聽 疾由是轉革 是夏六月十四日 啓乎足 方奄奄 猶命人扶起坐 理髮頰面
整襟拭目 神觀自若 正席而終 時忽有雷 電光閃閃照室 與纘俱息 聞者異之 比之韓魏
公棄世日事 享年七十五 越明年六月卜葬 葬用功臣禮 官庀焉 先生天資淑慝 玉溫金
剛 可畏而親 曷時同曹 耦從許草堂學 適退溪先生在座 獨視躡之 元判樞混大素也 世

稱神鑑 得名香絕佳者曰 人品與此香相似者 唯洪某 始先生 自雄其才 文力於班 詩力於社 與崔慶昌 李純仁諸韻士 上下吟咏 及執雉閱習靜門 始覺文章爲小技 遂盡棄其學 回脚實踐地 其後又納拜退陶先生 益見昭曠之源 由是推之行業 明白痛快 務在絕偏私 行大公 其在臺也 趙瑗佐銓妄肆 除薦舉彈不饒 瑗即先生舊要也 李栗谷 稱以古道 其爲金吾堂上也 黃廷彥 坐陷賊負君流竄 其子上疏 乞放田里下 錦衣議 先生以罪關倫紀 持不可 姜蔡文以贖貨逮訊 時議謂嘗欲解 先生曰三尺安在 於臚甚嚴 姜大憲 簞 素習先生 且有瓜葛分 爲弟造先生 唯涕泣緘口而去 先生持議尤平 秉誼尤確 癸未年間 宋許諸人勸栗谷 至詆以糶髡 先生非之曰 此非君子之言 其後晦退兩先生 被誣仁弘也 中外多士 文章辨之 語侵南冥甚 先生曰 是類賈豎女子爭言 何無大體 唯明兩先生道大德尊 則邪說自息 南冥之隱遜高致 亦不可舍也 仁弘撰守愚堂碣文 送先生所曰 守愚亦公道義之交 願得公筆 先生謝曰 吾老不能書 盖博仁弘之爲人也 鄭逆於先生 同年司馬也 南行路 謁先生于水原府 語及朱子曰 晦庵於數學不明 先生容若無應 語人曰 世稱博學人誤矣 己丑逆誅 先生亦無幾微先見色 李潑兄弟 殞於杖下 先生解衣覆屍而哭 棺與殯窆 親自當之 子弟泣止之 先生曰 吾實知其冤 乃以禍福 易吾心哉 人皆爲先生危之 賴有知先生平生者 得免 先生內行之篤 天至也 在十七八時 侍繼妣 夫人疾 爲應多端 先生口受繼妣說 應問于醫 及返 妣令傳所言 先生跪陳一一無半辭 漏 妣嗟歎曰 非至誠能是乎 醫亦曰以親瘠來吾門者何限 至誠動人 未有若洪秀才者 藥人亦擇精材以待 至甚老後 無一日不晨謁祠堂 祭饌必親執 雖子弟 不使之代 以終其身焉 噫 先生之學 最深於明體適用 故其事君事親 居官涖民 與待朋友 臨大事 決大疑 左右逢原 俱得其當 先生可謂博大通儒哉 牙述溫昌二邑人士 爲先生 各立書院 尸祝而俎豆焉 內子載寧李氏 封貞敬夫人 司畜別提衡之女 柔嘉淑明 事君子 夙夜祗飭 教子孫 御婢使 慈而有法 先生當邁厲色篤 夫人至割指和藥 七十後 遭母夫人喪 喪食終三年 君子以爲丈夫所難 巫瞽祈禳 一切屏斥 家雖貧 惟祭祀必誠必豐 於是 人知先生德行 又行於家也 卒於萬曆乙卯三月 距其生嘉靖庚子 春秋七十六 生五男二女 先生仲胤 參奉棗氏 昔訪綱于牙之海岸 以先生行狀及文集 授綱乞繫牲之文曰 子之皇 大夫贈公與先人 同榜最相嘉 子既撰洪陽清難碑 知吾先人事者 世無若子者 敢以重累 子 綱義不敢辭 而猥許爲之 其後參奉沒 于今十有餘年矣 前年先生孫字遠 解北青半 刺任 歸其鄉路 過綱泣涕言曰 叔父所託 先祖墓道事 執事其忘諸 綱謝不敏 辭以老病 如許難強筆研 則字遠氏 堅懇不已 遂按狀敘本末 而敬爲之銘 銘曰

昔我先王 絀霸伸儒 嗶嗶傳士 爲時世須 彬彬臺閣 刮磨盤孟 於惟先生 絕類離群 居必齊難 動若蘭薰 親不可劫 近不可迫 惟其所操 性靜學得 於杏立雪 於陶浴德 內而

事親 外而復職 何處不極 養精仁熟 世謂儒者 當用而迂 孰如先生 動適事樞 世謂儒者 多言誇嚴 孰如先生 深易謙謙 癸丙二疏 肝血一掬 聖明照臨 所以諤諤 所以諤諤 寵以方州 洪稱岳邑 俗羯湖喉 先生一泄 教晰化流 孰爲盤錯 我有利器 孰爲破車 我有長轡 俄有逆鷲 霖林踏鴻 一朝授首 伊誰之功 王曰允勳 來汝定第 先生守讓 若禿視髦 眦勉爽鳩 又尹松都 乘秋起輿 愛泛五湖 知止非賢 色斯斯難 曾未一紀 夜矣靈壇 倫敦賢錫 國餘有幾 生順歿寧 先生之隸 墓之有石 我撮其跡 以告來詩 過者必軾 第一子槩縣監 娶宋弦女無后 以弟榮子字寬爲嗣 生一男完 完生四男 長日章別提 次日新武科宣傳官 次日強 季日知出繼 別提生一男儻

第二子榮庶尹 娶判書許箴女 生五男二女 男長字定佐郎 次字寬出繼 次字遠文科吏曹判書 次字亮武科水使 季字宏出繼 次女適崔光胤 佐郎生四男 長克直長 次允 次凭判官 季亮直長生一男游直 允生三男 長游聖 次游敬縣監 次游命判官生一男游範 亮生二男 游益游謙 判書生五男 長冕直長 次篋無后 次沆生員 次境 沆直長無后 以從兄子日知爲嗣 生員生四男 日燁日煥日休日恒 沆生二男 日賓日遂 水使生一男晚 晚生一男游文

第三子棗參奉 娶應教李詰女 生一男二女 男字肅 女長適咸陵君李澥 次適李晶 宇肅生二男 長元 季老 元生四男 長日省 次日三 日重 季日錫出繼 老生一男日贊

第四子棗贈吏曹參判 娶參議韓伯謙女無后 再娶忠武公李舜臣女 生四男一女 男長字泰 次字紀 文魁判決事 次字迥 季振夏出繼 女適尹受慶 宇泰生一男勤 勤生三男 重錫重維重周 判決事生六男 長 觀 次觀進士 次觀文科正郎 次 觀 觀 季 觀 出繼 觀 生三男 長重三奉事 次重百重萬 進士生一男重範 正郎生一男重一 觀 生二男 重祐重禧 觀 生四男重五重九重道重衍 宇迥生二男 長觀無后 次倪生三男 重呂重震重鼎

第五子葵 娶判決事李慎義女無后 以兄子宇宏爲嗣 生五男 長覺次覽武科 次光旭 季彪武科府使 覺生四男 游養游鳳游信游漢 覽生二男 長游龍 季游海出繼 光生三男 長游涵 次游吉出繼 季游濂 旭生一男 游龜府使無后 以兄子游吉爲嗣

長女適判官沈天挺 無后

次女適副提學申涌 生二男 長得洪文科掌令 次得溟 掌令生三男 長灑主簿 次溟文科承旨 季 灑 承文正字 得溟生一男灑

後先生卒四十有三年 碑文成 又五十有一年 節忠之典舉 又十有一年 頭刻始竣 盖卒參奉公泉冢宰公志也 於是敬就官御 加贈諡文莊公五字文中 至子若女 虛其下 今不敢輒補 於左別爲撰 次內四代 而外半之 嗚呼 爲而不有 卷而不究之美之揚 君子有後



崇禎紀元後 再丁酉 九月 日立
後學 奉直朗 前洪陽縣監 蔡彭胤 識



아산의 神道碑

- 2008년 2월 20일 인쇄
- 2008년 2월 28일 발행

- 발행처 온양문화원
- 펴낸이 김시겸
- 해 석 홍승욱
- 인쇄처 중앙인쇄사